

『율리시스』 독회— 「배회하는 바위들」과 「사이렌즈」

송 인 영

〈일러두기〉

1. 기록 내용은 다음 세 가지, 독회에서 개진된 견해를 정리자가 기록한 부분 (발의자 이름 표시), 독회에 참가한 회원이 독회 후에 첨삭 정리해서 보내온 메모 (발의자 이름 뒤에 *표시), 불참한 학회 회원이 개별적으로 보내온 의견(발의자 이름 표시)으로 구성된다.
2. 1차 정리한 독회기록문은 참가자와 회원에게 초고 형식으로 회람되어, 첨삭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거쳐 완성된 독회기록문을 학회홈페이지 및 회원에게 최종본으로 송부한다.
3. 『율리시스』(*Ulysses*)는 Gabler 판본에 의거하여 장과 행을 표시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처를 따로 밝히지 않는다.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 U라고 표시한다.
4. 독회에서 거론이 되었더라도 Gifford의 주석본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기록하

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록할 경우 (G)로 표시한다.

5. 발제자의 모두(冒頭) 발제는 “<발제>,” 참가자 간의 의견 교환은 “<토론>”으로 표시한다. 사후 접수된 의견 가운데 제목이 붙어있고 비중이 있으며 논점이 명확한 해제의 글은 “<토막춘평>”으로 분류한다.

제 34회 『율리시스』독회

〈모임〉

독회진행자: 송인영(제 10장), 손승희(제 11장)

정리자: 송인영

장소: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구관 412호

일시: 2006. 1. 21. 오후 2:00-5:30

범위: *Ulysses*, Chapter 10 ("Wandering Rocks"), Lines 1283 ~ Chapter 10, 끝, Chapter 11, ("Sirens"), Lines 1 ~ 88.

참가자: 김길중, 이태수, 이종일, 전은경, 유두선, 이인기, 남기현, 손승희, 박진훈, 정인경, 송인영

제 10장

〈발제〉

Section 19는 "Wandering Rocks"의 마지막 일화로, 더블린 시내를 관통하며 지나가는 William Humble 총독 일행과 이에 대해 대체로 경탄하는 반응을 보이는 더블린 시민들을 보여준다. 총 60여 명의 사람이나 사물이 언급되고 있으며, 그 중 27명 가량의 인물들이 이 삽화의 주된 관심 대상이다. 이들은 이미 앞의 Section들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인물들이다. Section 19는 이들을 파노라마식으로 보여줌으로써, *U*의 전반 10개의 장, 더 작게 보면, "Wandering Rocks"의 앞

18개 일화들의 인물들을 총정리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급된 적이 없는 Gerty, Miss Kennedy와 Miss Douce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앞으로 등장할 인물들을 미리 선보이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발제자)

〈토론〉

10.1178. William Humble, earl of Dudley - 1902~06까지 아일랜드 총독으로 재임. (남기헌) 10.1185 행에 Mr Dudley White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Joyce가 Dudley라는 이름으로 Wordplay 한다는 느낌이 듦. 사전에 "지겨운 사내"라는 뜻을 지닌 "Dudly"가 나옴 (송인영) Dudley는 처음으로 석탄을 이용하여 제철, 제련하는 기술을 개발한 인물(Dud Dudley, 1599~1684)의 이름이기도 함. 한편 "Dud"에는 "누더기, 실패(한), 불발탄, 버린 사람, 진저리나는 녀석" (한컴, 민중엡센스) 등의 뜻이 있고 "Dudley"의 애칭으로 쓰이기도 함. 실제로 영국인의 뜻풀이에 따르면 'no hope', 'silly'란 뜻도 있음. 1185행 이하, Dudley White란 인물이 고민할 문제가 아닌 것을 갖고 고민하는 모습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임. (유두선*).

10.1179. the honourable Gerald Ward A.D.C - A.D.C.에는 "Aid to Dependent Children"이라는 뜻과 "Aide-de-camp"(전속 부관)이라는 두 가지 뜻이 중첩되고 있음.

10.1185-90 - Mr Dudley White가 Phibsborough까지 전차, 도보, 마차 중 어떤 경로로 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부분. 그러나 사실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을 택해도 10~15분 정도 걸리기는 마찬가지이므로 고민할 만한 문제가 아님. (G)

10.1195 - Section 9에서는 아일랜드 법률종합청사 앞을 지나던 초로의 여인이 "an elderly female with false teeth smiling *incredulously*"(10.473~74) 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총독을 보면서 "smiled *credulously*" 하는 것으로 바뀜.

10.1197. Poddle river hung out in fealty a tongue of liquid sewage - 하수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모양을 총독에게 충성을 표하는 모양새로 표현. 그 발상이 우스꽝스

러우면서도 풍자적이고 냉소적임. 여러 층위로 해석이 가능.

10.1203-04. Hugh C. Love ~ made obeisance unperceived~ - 현재 Love 사제는 Fitzgerald 가문의 독립투쟁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 역사적 현장이었던 St Mary Abbey의 터를 방문하고 오는 길이다. 그런 Love 사제가 총독행렬을 향하여 경의를 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성직 수여권이 총독의 손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의식했기 때문.

10.1206-10. Gerty McDowell ~ couldn't see what Her Excellency had on~ - 10장의 마지막 section에는 이 장 전체가 그런 것처럼 이 장 앞에 나온 바 있는 대부분의 주요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예외(이 대목 이후에 등장할 인물)가 바로 뒷장의 전면에서 등장할 Miss Kennedy와 Miss Douce를 제외하고는 그 "Mr Denis Maginni, professor of dancing & c"(10. 1239)와 Gerty MacDowell이다. 이중 특히 Gerty는 나중에(제13장에서) 본격 등장하는데 작가(또는 소위 'the Arranger')는 마치 처음 등장한다는 듯이 "But who was Gerty?"(13. 78)라며 능청을 떠다. (이종일*)

10.1230. winebigoyster eyes - wine이 술이라면 어법이 이상하니 grape의 뜻인가? winedark라는 homeric epithet에게 맞추었는가? 또 oyster에게 눈이 있는가? Menton은 Bloom의 antagonist인데 두 사람 모두 oyster eyes를 가졌다? (김길중*)
"winebig": "wine grapes"란 말은 혼합. 따라서 추측하자면, winebig은 '색깔'이면서 '크기'일 수 있음. winegrapes란 것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모든 포도로 술을 만들 것 같지는 않음. 우리에게 익숙한 merlot 등이 모두 wine grapes의 이름에서 유래함. (유두선*)

10. 1236-38.a jaded white flagon H. halted and four tallhatted white flagons halted behind him, E. L. Y'S - 정치를 대표하는 총독의 행렬이 중심 모티브인 마지막 Section에서 다섯 개의 문자 중 'H'가 시각적으로 동떨어진 것은 종교를 대표하는 Connée 신부의 보행이 중심 모티브인 첫 section("W[h]y don't you [h]old back that [h]owling mob?"(10.35))에서 자음 'H'가 청각적으로 생략되어 있는 것에 대응된다. 문자의 foregrounding (혹은 marginalisation?)을 통한 'coincidence of contraries'의 실례라고나 할까? (이종일*)

10.1239-40. Mr Denis J Maginni ~ outpassed by a viceroy and unobserved 한껏 치장을 한 매기니 교수의 모습을 총독이 못보고 지나침. 과시성 짙은 매기니 교수의 옷차림이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함.

10.1242. skyblue clocks- 하늘색의 양말 목 자수 장식

10. 1245-46. His hands...his lips - Boylan이 총독에게 인사할 것은 감박하고 입에 빨간 꽃을 문 채 여인들에게만 뻔뻔스러운 시선을 보내는 것은 과연 바람둥이답다. (이종일*)

10.1258. quartermile flat handicappers, M.C. Green~ 이후 나열되는 이름들은 자전거 경주 참가자들 명단? 장애인 경주자들? 우수선수들에게 일정한 핸디캡을 지니게 함으로써 우승의 기회를 다른 선수들에게도 골고루 나누어 주려는 "핸디캡 부여 자전거 경기"의 선수들? 아마도 세 번째일 듯. (송인영)

10.1264. Hornblower~ tallyho cap - Trinity University의 수위. 그 수위가 총독을 보고 경의를 표함. Tallyho cap은 원래 여우 사냥 시 쓰던 모자를 가리키는데, 트리니티 대학의 수위가 이와 비슷한 모양의 모자를 썼다고 함. (G)

10.1271. a pedestrian in a brown macintosh ~ passed swiftly and unscathed across ~ Hades 장에 잠깐 출현했던 Macintosh가 여기에 다시 나와서, 총독의 마차행렬에 치이지 않고 건너갔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 콘미 신부와 총독은 Symplegades, 즉 가위의 두 날처럼 움직이면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모든 것을 부수어 버리는 바위에 비유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Macintosh가 총독 행렬의 가위 날에 베이지 않고 지나갔다는 의미는? 왜 하필이면 그 인물이 Macintosh일까? (송인영)
[이에 대한 반응은 아래 <기타 논점> 참조]

10.1273-76. the Royal Canal bridge ~ the lord mayor 실제 명칭이 아님. (남기현)
[자세한 설명은 <제33회 『율리시스』 독회기록>, 10.1110 설명 참조]

10. 1282. swallowed by a closing door - 이 장의 끝 대목이 문 닫는 장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첫 대목이 Connmee신부가 집을 나서는 장면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대조된다. (이종일*) 총독 일행의 마차 행렬을 다루는 Section 19에는 U의 등장인물들이 대부분 선을 보이는데, 특이하게도 주인공인 Molly, Bloom, Stephen만은 등장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송인영) [이에 대한 반응은 아래 <기타 논점>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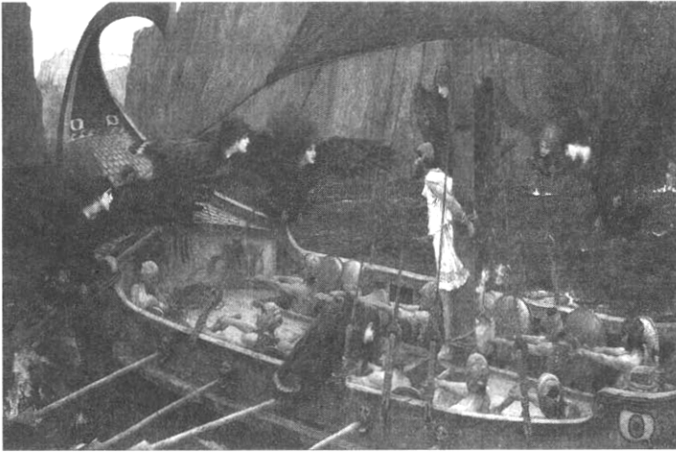
〈토막존평〉

요지경 "Wandering Rocks"를 지나가는 "a pedestrian in a brown macintosh"(10.1271)에 관하여

호머에서 키르케가 오디세우스에게 경고한 Wandering Rocks는 제우스의 심부름 비둘기마저도 통과하지 못하는 엄청난 위협의 해역(『오디세이』 12장)이다. 유일무이한 예외는 황금 깃털을 찾아 나선 이에손(Jason)의 배 아르고(Argo)선 뿐이었다. 그런데, Paddy Dignam의 장례가 치러지던 Glasnevin 공동묘지에 처음 출현하여 Hynes의 문상객 명단에 M'Intosh라는 이름으로 엉뚱하게 오른(6.895) 이수수께끼의 ‘마킨토시 입은 자’가 여기 "Wandering Rocks"의 맨 끝 제19 일화에 다시 등장하여, 식민지 총독(viceroy)의 행렬이 “강철 말굽소리 쟁쟁 울리는”(hoofirons steelyringing) 곳을(11.1) “상처입지 않고”(unscathed) 지나가는 것(10.1272)으로 되어있다. 총독의 행렬에 Stephen과 Bloom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이 현대의 오디세우스가 키르케의 충고를 따른 셈인데, “상처입지 않고” 지나가는 이 “갈색 마킨토시 비옷을 입은 보행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아르고를 지휘한 이에손 역이 아닐까? 그리고 그는 다시 부재(不在, absence)하여 위협을 모면한 Stephen-Bloom의 대리역이 아닐까? 제 1장에서 스티븐은 자신이 식민지 종주국인 영국과 영혼을 관리하는 로마교회, 이렇게 두 상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했다. 작가가 “중간장”(Entr'acte)이라 부른 본 장은 사실상 책의 중심이면서 역사와 현실의 한 복판이기도 한데, 상처 없이 이곳을 지나가는 "macintosh"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스티븐의 “불순종”(non serviam) 선언의 상징적 변용(變容)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이 해석은 다음과 같은 반어적 이중의미를 전제하여야 할 것이다. "Hades"에서 Hynes의 오해로 본인도 모르게 들쭉쭀운 이름인 M'Intosh는 mac를 축약한 철자법으로 보아 Celt계이면서도 비(非) 아일랜드계일 가능성이 높은 이름

이고, mac-in-tosh로 파자(破字)하면 영국 속어 tosh의 뜻을 좇아 ‘son of nonsense’로 통한다. 그런데, tosh가 nonsense의 뜻을 갖게 된 연유는 왕년의 영국 대학들의 속어로서 ‘어느 college에도 속하지 않는 학생’ 곧, ‘소속 없는 학생’이란 뜻의 ‘tosher’에서 역행 형성(back formation) 되었는데, 이 tosher는 다시 ‘unattached’라는 말의 발음이 변형되어 생긴 근거 없는 말이라는 해석이 있다. 곧, 강세를 받는 후음절 ‘tach-’ 발음만을 과장하여 취한 다음 행위자(agent)를 뜻하는 접미사 ‘-er’을 우격다짐으로 들붙인 것이다. 이상은 주로 몇몇 사전에 기재된 어원에 의거 추론한 것인데, 중심을 비워내는 말과 뜻의 우습고 화려한 변용(metamorphosis)이 무척 아일랜드인 조이스답다. (조이스가 『율리시스』의 최대 미스테리로 ‘macintosh’를 설정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이와 같은 어의(語意)형성의 드라마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이 말의 액면 값은 스코틀랜드의 실존 인물 Charles Macintosh(1766-1843)가 제작하고 자신의 이름이 붙은 ‘비옷’인데, 이 비옷의 색깔이 『더블린 사람들』에서 마비의 상징인 brown이다. 따라서 ‘macintosh’는 일단, 더블린의 ‘마비’ 혹은 그 이상의 심각한 증후(general paralysis of the insane)와 그 원인인 외래 폭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장비(裝備)의 상징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스스로 마비의 화현(化現)임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unscathed”는 기막힌 첩첩의 반어인데 ‘말 탄 자’에 대한 “보행자”의 퇴행적 자족감이 그 중 큰 몫일 것이다.

[11] SIRENS



John William Waterhouse (1849-1917) - *Ulysses and the Sirens* (1891).

제 11장

〈발제〉

Sirens: Sirenum scopuli 섬에 사는 2~5명의 요정. 10세기 전후까지는 상체는 여성, 하체는 새라고 여겨졌으나 이후에는 매혹적인 여성이나 인어라고 간주됨. Sirens에 얽힌 신화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율리시스가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은 채 사이렌의 노래 소리를 무사히 들으며 섬을 통과해 갔다는 일화가 그 하나다. 다른 하나는 이아손 일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이아손이 데리고 간 오르페우스가 리라를 훨씬 아름답게 연주해서 사이렌의 소리를 압도해 버렸다는 일화이다. 어쨌거나, 사이렌은 배가 무사히 빠져나가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설이 있다. -en.wikipedia.org/wiki/Siren 참조

Schema

Title	Sirens
Scene	The concert room
Hour	3:38-4:30
Color	Coral
Persons	Leucothea, Parthenope, Orpheus, Menelaus, the Argonauts
Correspondences	Sirens Barmaids, Isle Bar
Technic	Fuga per Canonem (여러 목소리와 악기가 주제를 변주해 가며, 반복 연주하는 음악 기법)
Science	Music
Sense	The sweet cheat
Organ	Ear
Symbol	Promises, Sounds, Embellishments, Barmaids

Ormond Pub: 실제로 작은 음악회가 자주 열린 곳으로 유명한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자주 왕래했다고 함

Leucothea: the White Goddess, 혹은 Ino로 알려져 있음. Homer의 *Odyssey* 5권에서 Odysseus가 Calypso와 헤어지고 항해를 다시 시작하지만 이내 Poseidon이 내린 시련으로 그의 배가 난파당하고, 선원들도 익사한다. 이때 바다의 정령인 Leucothea가 나타나 오디세우스에게 신비의 베일을 건네주어 그의 생명을 구해준다. Odysseus는 이 베일을 가슴 밑에 두르고 몸을 가리고 Phaeacia 섬에 당도한다. *Odyssey* 5권에서 베일이 나오는 부분을 인용하자면 "Come, take this veil, and stretch it beneath thy breast."이다. (이때 베일은 아마도 머리에 두르는 긴 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듯하다. (이태수*))

기묘하게도 11장의 시작과 결말 부분은 두 여급, 즉, Douce와 Kennedy가 총독 일행을 구경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10장 1198행과도 연결됨. (이상 손승희)

〈토론〉

11.1-61. - "Sirens" 장의 theme들을 본격적으로 전개시키기 전에 그 단편들을 톡톡 소개한 부분으로서 음악이라고 본다면 'prelude,' 'overture' 격. 각 인물의 행동거지,

사랑의 배신, 불륜의 처지, Ormond 술집의 분위기, 노래 가사 등등이 조합을 달리 하여 하나의 단위로 묶이고, 그 각각은 한 행에 하나씩 제시된다. 그리고, 이 주제들은 이후 본문에서 거의 동일한 형태로 다시 나타난다. 총 60여 개의 fragments들이 등장하고, 각각은 하나의 건반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음악을 미혹시키는 소리라고 본다면, 과연 이 소리는 여성의 소리만을 지칭할까? (손승희) text를 완성한 후 이 overture 부분을 썼나? overture의 구절과 text의 구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부 일치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일치하거나, 아니면 암시만 해주는 형태로 text와 상응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이태수, 남기현)

11.1. Bronze by gold ... hoofirons, steelyringing - Bronze by gold 는 머리 빗깎아기는 하지만 같은 줄에 나오는 irons, steel과 같은 어휘와 연결됨. (전은경*); 호머의 작품이 쓰여진 시대가 철기 시대였음. (이태수);-bronze가 머리 색깔로 잘 안 쓰인다는 사실이 신화적 역사시대 언급의 의도성을 귀띔한다. 신화의 bronze age와 gold age는 아일랜드로 치면 Celtic twilight의 아일랜드 영웅시대를 환기함. 조이스는 Irish Renaissance운동에 대해 realist였음. iron은 역사시대의 외연으로서 현재, 현실, 현대일 수는 있으나, 그것은 관념이고 여기 steelyringing 또 ringing steel (11.65)는 영국의 식민통치의 무단성을 확연히 꼬집어서 상징하는 듯함. (김길중*) 동과 금의 아가씨들이 Ormond Hotel 내부의 감미롭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데 반해, 쇠붙이(steel, 또는iron) 소리는 호텔 바깥세계의 살벌하고 일상적인 현실을 나타낸다. (cf. 10. 64-65) (이종일*)

〈The Five Ages of Man〉

	특징	죽음 혹은 멸망 이후
황금시대	Cronus의 통치 시대 고통과 불행이 없는 지고의 행복, 물질적 풍요, 신의 축복, 늙지 않고 살다가 잠자듯 죽음	지상의 선한 정령으로 인간 의 파수꾼 역할을 함
은시대	Zeus 시대. 몸과 마음이 황금 종족보다 열등함. 백 년 동안 어린아이로 살다가 갑자기 성인이 되지만 무지로 인해 고통을 받음. 신에게 불경 스럽고, 상호간에 폭력을 행사함	신에 대한 불경죄로 멸망하 지만 지하세계에서 성스러 운 피조물이라고 불리면서 약간의 존경을 받음
청동시대	제우스가 물푸레나무에서 거칠고 사나운 종족 을 창조함. 악행을 저지름. 집과 무기가 청동 임. 엄청난 힘을 소유. 농작물을 먹지 않음.	지하세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짐 (스스로의 폭력으로 파멸함)
영웅시대	반신반인과 영웅의 시대. 고상하고 정의로운 종족. (특정 금속 종류가 배당되어 있지 않고, Ovid의 <i>Metamorphosis</i> 에서는 나오지 않음)	테베 전쟁과 트로이 전쟁으 로 최후를 맞이함. 살아남은 축복 받은 영웅들은 Elysium 으로 감.
철기시대	현재 시대. 삶이 고난의 연속임. 사악한 마음 속에 고상한 심성도 있음. 멸망의 시기가 가까워 오면, 부모, 형제, 친구 등의 관 계가 파괴되고, 위증과 폭력이 난무할 것임.	쓰라린 고통만이 남고, 아무 도 이를 피할 수 없음

- 헤시오도스, 『노동과 나날』(*Works and Days*), (헤시오도스, 『신통기』, 김원익 역. 민음사, 2003에 수록). 125-31참고. (정리자)

역사학의 구분을 따르면 그리스 지역에서 B.C. 2000년경에서 B.C 1000년경까
지가 청동기이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철기시대가 됩니다. (그 경계선은 물론 칼
로 자른 듯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 역사 연구가들은 이 시기를 Helladic
Age라고 부릅니다. 이런 큰 구분 안에서 B.C 1600년경에서 1100년경까지는 미케
네 문명시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서사시나 비극은 거의 다 이 시대

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B.C 1100년 이후부터는 암흑기(Dark Age)가 도래하여
근 400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 이후 B.C. 700년경 중반부터는 그리스의 상고시대
(Archaic Age)가 시작되며 보통 그것을 본격적인 그리스의 고대사의 서장으로 간
주합니다. 바로 이때에 호머의 작품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태수)

황금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역사시대 이전	영웅시대(BC 11~12)	시민시대(BC 8~10)
신화 상으로 존재	<i>Iliad</i> 시대	Homer 시대

*The Song of Sirens*라는 저술에서 Pietro Pucci는 Sirens의 노래가 실은 당대가
아니라 찬란했던 과거시절, 즉, 일리아드적 영웅의 시절을 그리는 노래였다고 추측함.

호머는 사이렌이 일리아드의 투로 노래를 하게 함으로써, 오디세우스에게 트
로이 전쟁 때 보여 주었던 영웅으로서의 용맹함과 찬란함을 상기시키지만, 오디
세우스는 그런 찬란함의 유혹을 견뎌내고 평범한 비 영웅적인 고향의 집으로 귀
환한다. 그것을 호머는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시사하는 듯하다.

"Sirens" 장도 이러한 Homer식의 입장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Ormond pub
의 외부 현실은 viceroy의 지배를 받는 일상의 정치세계인데, pub안은 청동과 황
금의 시대, 말하자면 비밀상적, 서정적, romantic한 시대의 분위기를 띄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비현실적, 복고적 찬양에 대하여 Joyce는 경계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상 이태수*)

11.2. Ormond - "descendent of Ruadh"라는 뜻의 아일랜드 성(姓) "Ruaidh"의 영어
식 변용. Ruadh는 켈릭어로 "red"라는 뜻

11.3. picking chips off~ - 엄지 손가락 끝의 굳은 살을 깨물어 뜯는 것 (전은경)

11.4. Horrid- "망측해라!" (이종일)

11.5. fife - 피페라는 관악기 소리. 피페는 조율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pitch pipe), 매우 작아 고음을 잘 낸다. (정인경) 여기서는 Simon이 담배를 넣기 전에 파이프를 후후 불어서 속을 비워내는 소리(이종일); 담배 파이프를 피울 때, 처음에는 거칠고 날카로운 소리가 나기도 함. 11장에서 언어로 보여줄 수 있는 음악적 효과가 최대로 발휘되고 있음 (남기현) "blew" → 다음 행의 "Blue" → "Bloom"으로 소리의 음가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전혀 다른 단어들 이 연결되고 있음. 또한 text의 상응부분인 218행의 "flue two"는 "flute"으로 읽혀질 수 있다. (손승희)



fife (from Google)

11.22. Lost - Bloom과 Molly의 관계를 염두에 둔 단어 (전은경); "(내가) 잃었다"라는 노래 가사? Bloom의 처지를 표현. U에서 Bloom이 마음고생을 가장 심하게 하는 장이 "Sirens"의 장. (이종일); 11.637과 연관해서 보면 "surrender"의 의미. (남기현)

11. 40. Wait while you hee - 여기에서 hee는 hear의 약자. 앞서 나온 Hee hee와 음을 맞추기 위하여 약자로 쓴듯함. "사이렌즈"장이 음 위주의 장임을 실감나게 하는 대목. (전은경*)

11.43. Naminedamine - "in the name of God"의 뜻으로 본문에 나오지 않는 어휘이지만 바로 이어 나오는 Preacher is he라는 문장을 생각할 때 본문에서 "The Croppy Boy"라는 애국과 배신의 주제를 다룬 노래에서 나오는 신부와 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됨. (전은경*)

11.46. Amen! ~He gnashed in fury - Amen이 평화로움, 자비와 같은 종교적이며 신성성을 나타내는데 비하여 "He gnashed in fury"는 분노를 표현하기 때문에 상충되어 보임. 이로써 "The Croppy Boy" 라는 노래에 담긴 패러독스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임. Amen! He gnashed in fury. 이 두 문구를 합하여 읽는다면 또는 가톨릭 종교에 대한 신성모독적인 문구로 볼 수도 있겠음. (전은경*)

11.48. Bronzelydia by Minagold - 즉, Lydia Douce by Mina Kennedy. 이상하게도 Joyce는 두 여인의 full name을 시원하게 소개하지 않는다. 맥락 상 독자들이 파악해야 하는 부분임. (남기현); 청동시대를 대변하는 Lydia Douce의 Lydia는 소아시아 서부의 부유한 옛 왕국 이름이기도 하며, Mina Kennedy의 Mina는 고대 그리스의 금액, 무게의 단위였다고 함. (송인영)

11.61. eppripfftlaph - 방귀소리와 에멧(Emmet)의 애국적인 비장함이 깃든 유명한 어구가 합성되어 하나로 어구로 축약된 어휘로서 또 하나의 신성모독적인 표현. (전은경*)

11.62. Done—세 가지 의미가 함축됨: 1) 생리적으로 불륨의 방귀가 드디어 배출됨 2) 에멧의 사형선고가 내려졌을 때 그의 마지막 말 3) 본문 시작 전의 서곡에 해당 하는 이 서막이 이제 끝났음을 알림. (전은경*) 1803년 Rebellion으로 Robert Emmet은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영웅이 되었음. (남기현)

Robert Emmet이 남긴 말: "Let no man write my epitaph... When my country takes her place among the nations of the earth, then shall my character be vindicated, then may my epitaph be written". (en.wikipedia.org/wiki/Robert_Emmet)

11.65. crossblind—유리창 바닥에서부터 위로 말아 올려 치게 되어 있는 차일(7장 44행에 대한 Gifford의 노트 참조) (이종일*)

11.77. ~ He's killed looking back—여기서 "killed"는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 아니라 매료당한다는 뜻이다. 즉 이 문장은 "나한테 반해서 뒤돌아본다"는 뜻이 된다. (이종일*, 이태수) 영어의 뜻과 한자의 '죽일 살'—물론 '왜'로 읽지만—이 묘하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돌아보다 죽었다'는 뜻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복고주의'에 대한 경교로 읽을 수 있을까?) 사전 상으로, "to make a markedly favorable impression on ~" (예: she *killed* the audience) (웹스터 사전)의 뜻이 있으며, 한자로는 뇌쇄(惱殺) (한컴사전) 라는 단어가 있다. (유두선*) Orpheus 뿐만 아니라 Leucothea 신화에서도 "돌아보지 말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태수)

11. 78-80. She laughed:/ —O wept!/ With sadness 이 문장을 84행의 “—It's them has the fine times, sadly then she said.”와 함께 살펴보자. 여기서 “With sadness”와 “sadly”는 둘 다 “감정적으로 슬퍼하면서”라는 뜻이 아니라(두 여자는 지금 낄낄거리며 신나게 수다 떨고 있는 중이다.), “한심하다는 듯이”라는 뜻이다. (이종일*)

11.82. gold no more—금본위제 폐지와 무관하지 않은 듯. (유두선) (금본위제는 로마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화폐개혁(286)을 시작으로 도입. 보유한 금의 양만큼 통화를 발행하는 제도. 통화량=금보유량이 언제나 유지되어, 인플레이와 디플레이 현상 없이 화폐가치를 안정화시키는 방식? 그러나 1차 대전과 경제 공황을 겪으면서, 중앙정부가 화폐를 풀어 경기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생기게 되자, 대다수 나라에서 종래의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관리통화제도를 시행했다. 이로써 액면가치가 소재가치와 일치하지 않게 되고, 인위적인 통화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Table of Classical Gold Standard〉

Country	Type of Gold Standard	Period
Britain	coin	1774-1798, 1821-1914
United States	coin	1879-1917
France	coin	1878-1914
Germany	coin	1871-1914

Table출처- "Gold Standard," Lawrence H. Officer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이상 유두선* 참조)

11. 80-84. With sadness~ - 여기부터 그 다음의 문단에 이르기 까지 'sad'란 어휘는 다섯 번 반복되어 나옴. 이는 '사이렌' 장인만큼 소리 위주의 리듬을 위하여 반복된 감도 있고 또 한편 케네디 양이 행렬 중에 있었던 높은 실크 모를 쓴 남성("the fellow in the tall silk")(11. 70)을 보고 조롱조로 웃었으나 행렬이 지나가고 다시 현실로 돌아 와서 자신의 처지를 의식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사실은 그 남성을 비웃을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서 갑자기 서글퍼지는 모습을 서술자가 애처롭게 보이도록 묘사함. (전은경*) Kennedy양이 남자들의 얼굴이 것이 한심하다고 하면서 스스로 처연해지는 느낌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기억납니다."With sadness"와 다음 문장에서 몇 번 나오는 "sadly"와의 연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나온 선생님들의 말씀을 종합하면, 남자들 대 여자의 처지가 비교되면서 한 술집 여급의 마음 속에서 스스로 한심하다/쓸쓸하다는 생각이 교차되는 연결 고리를 별개의 문장으로 처리된 "sadness"가 서술자의 코멘트로서 앞의 분위기를 뒤의 "sadly"로 변용시킨다 정도로 요약되겠네요. (손승희*)

11.129-30. Sweet tea miss Kennedy plugged both two ears with little fingers. - homeric parallel의 견지에서 볼 때 siren에 해당하는 Miss Kennedy가 귀를 막는다는 것(Odysseus에 해당하는 Bloom이 해야 할 행동)은 ironical하다. (일차적으로, 유부남인 Bloom으로부터 성적 관심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Miss Kennedy가 Miss Douce와 더불어 siren 노릇을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실상 보다 깊은 차원에서 진정한 의미의 siren은 이 장의 뒷부분에서 Bloom을 심리적으로 몹시 괴롭히는 노래를 부르는 Simon Dedalus이다.) (이종일*)

11.149-50. - Bloom이 Aaron Figatner의 이름을 두고 항상 "Figather? Gatheing figs."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문자 'n'과 'h'가 비슷해 보이는 데 연유하는 착각이지만, 무화과(fig)를 모은다는 의미로 말장난을 하면서 chiasmus를 구현해 보인다는 점에서도 재미있다. 이와 관련하여 뒤이은 "come to me"(11. 152)가 아 장면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나중에 Simon의 노래 "M'appari"의 가사로 재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After with Dedalus' son"(11. 153)이 이 장면에서는 Mulligan이 Stephen과 함께 있는 것을 본 Bloom의 기억이지만 나중에 자신이 Stephen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단은 전체적으로 함축성이 많은 대목이다. (이종일*)

제 35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독회진행자: 손승희

정리자: 송인영

장소: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구관 412호

일시: 2006. 2. 18. 오후 2:00-5:30

범위: *Ulysses*, Chapter 11, ("Sirens"), Lines 79 ~ 285.

참가자: 김종건, 김길중, 이태수, 전은경, 엄미숙, 유두선, 이인기, 남기현, 손승희,
박진훈, 정인경, 송인영, 대학원생 2명 (강선영, 최영순)

〈토론〉

11.79. O wept! 불경(不敬)을 피하기 위하여 Jesus 대신 O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면 "Jesus wept!"가 됨. 성경 John 11:35에 이 구절이 나오는데, Jesus는 Mary of Bethany가 남동생 Nazarus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다고 함. (전은경, 박진훈) 독일어본에 따르면(Surhkamp, 2004) "O verflixt!"로 되어 있음. "verflixt"는 "damn, blast"의 뜻임. (이태수) 욕설로 볼 수 있으며, 이는 Kennedy와 Douce가 Sirens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 (김종건)

11.80. With sadness Blueness-Bloowhom-Bloom으로 이어지는 말장난일 수 있음 (강선영*)

11.82. she twisted twining a hair~ 음의 특성을 살리면서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100행의 "Bootsnout sniffed"에서 [s] 마찰음이 연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효과를 살리려면 어떤 식으로 번역할 수 있을까? (이태수); 문법은 없고 음악이 두드러지게 살아 움직인다는 느낌이 든다. (전은경); 감아 끈다는 뜻일 텐데, twist와 twin의 단어가 그 자체로 복수의 대상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막상 조이스는 머리카락 한 올이라고 밝혀 문법적 이해나 번역을 더 어렵게 만든다.

11.85. A man 바로 앞 구절에서 Miss Kennedy가 "It's them has the fine times"라고 말한 것을 받아서 Narrator가 "A man"이라고 말하고 있다. 재미를 보고 있는 사람들 무리에서 어떤 한 사람을 제외시키고 있음. (유두선)

11.86. Bloowho 파자(破字)하자면 "Bloo who"로, 그대로 놔두면 단음절어 "Blew-"로 들릴 수 있다. 동음이의어 효과가 발생(김종건, 손승희): 후에 Bloowhose(11.149)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Bloom의 격변화가 감지되는데, 여기는 물론 주격. Bloom 자체는 Bloowhom의 변용으로 목적격이라 할 수 있겠음. 또, Bloo 는 Blue이기도 하지만, Blow (꽃 피다, 바람 불다)인데 "breathing out"하는 의성어로 치면 "who" 부분은 그 연장선상의 의성 요소가 됨. "호흡"에서 "호" 부분이 그런 뜻의 의성어이듯. (김길중*); Bloom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앞 대목에서 제외되었던 한 사람이 바로 블룸이라는 것을 암시함. 블룸과 총독 행렬의 남성들이 대조되고 있음. (남기현) blue를 연상시켜서 슬픈 블룸을 떠올리게 함. (손승희)

11.94. loud boots 사이렌 장에 특히 어울리는 조이스다운 환유(metonymy)법이 소극적(farcical) 효과를 자아냄. (김길중*)

11.100-105. Imperthnthn thnthnthn~ 급사가 말 더듬는 것을 살리면서 이와 동시에 앞뒤 단어들과 음조를 맞춤 (손승희) 100행의 bootsnout는 남자 급사의 코를 언급. 동물의 경우 입과 코 언저리 전체를 일컬음 (전은경); Miss Douce의 핀잔이 boy의 콧방귀와 합성하여 리듬어가 됨. 앞에서(11.89) 남의 구두를 닦는다고 "boots"로 엉뚱하고 파격적으로 상징된(far-fetched synecdoche) 소년이 여기서는 "bootsnout"로 발전함. (포복줄도하자는 말인가?) 그 다음 "as"라는 표지를 달고 뒤따르는 동시촉발의 세 겹 행동양태는 청각 화음의 코믹한 시각적 패러디로 보임. 102행의 "Bloom."은 앞선 85행의 "A man."과 같은 "무대지시+집중조명"의 연극적 효과. 누가 그 arranger 혹은 prompter일까. 뒤에 오는 178-179행의 "(O!)"를 토하는 erotic impersonator와 동일 인물일 것이다. (김길중*); 앞서 나온 바 있는 A man→Bloowho→Bloom의 연결이 완성되는 대목. 외롭고, 쓸쓸한 인물이 바로 블룸임이 밝혀짐(손승희) 103행의 "Bloom."이 곧 이어 나오는 "On her flower"로 연결되며, 내용상으로는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음악의 일부라고 본다면 별무리가 없어 보임. (이태수)

11.103. On her flower~ 찻잔의 꽃인가? Miss Douce의 옷에 프린트된 꽃무늬인가? 아니면 옷에 장식으로 단 꽃인가? 110행에 "black satin"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여급의 복장이 검은색이었을 것이고, 여기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 꽃 장식을 한 것처럼 보임. 당시 barmaid의 복장 기본 색깔이 검은색. (전은경, 정인경, 송인영)



Eduard Manet, "Bar at Foiles-Bergere" (1881-82)

11.106. Ladylike in exquisite contrast "exquisite"는 여성의 특성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형용사. 또 다른 정형화된 epithet의 예는 Boylan을 특징지을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 "impatient". (김종건); 원래 앞 68행에서 miss Kennedy가 한 말. 거기서는 여성다운 말 (feminine epithet)인데, 여기서는 narrator의 입에서 나왔으면서 이 말이 동원됨. 코믹 효과이기도 하고, 또, 저쪽 속성의 말을(필경 가까이 관찰한 연유로 감화되어!) 엉뚱한 이쪽 편으로 옮겨왔으니, 이른 바 "Uncle Charles Principle"의 확장이기도 함. (김길중*) 무엇이 exquisite contrast한가? 아마도 말의 내용은 저속하고 험한데 그 말을 전하는 어조와 태도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 아닌가? 즉, 내용과 어조의 대조를 일컫는 구절임. (이태수) exquisite contrast는 11.68에서 총독부인의 머리 색깔과 옷 색깔이 대비되면서 이미 사용된 어구임. 따라서 exquisite 자체에 어떤 의미가 들어 있다기보다 말의 내용과 전달 방식 사이의 contrast를 여전히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앞에서 사용되었던 어구를 다른 상황에서 다시 사용한 경우라고 보는 것임. (이인기)

11.109. reef 술집 살롱의 카운터 보드를 말하는 것 외에 산호초를 연상시키고, 따라서 mermaid를 떠올리게 한다. 해변가 여성의 그림이 당시 실제로 담배 광고에 사용되었다. 이 광고에서 여성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옴. 결국 smoking/smoked mermaid가 됨. 조이스는 "Sirens"에서도 역시 신화와 현실이 절묘하게 맞물리도록 이미지와 단어를 배열함. (남기현)

11.112~13 steel 과 ring 두 단어의 순서를 바꿔가면서 재조합 하는 구절 (손승희)

11.114. sunburnt 해변가로 휴가를 다녀온 miss Douce의 피부가 햇빛에 그슬렸는데, 이는 그녀의 머리칼 색깔이 Bronze인 것과 연결지을 수 있음 (손승희) 백인들이 햇빛에 타면 괜찮은 갈색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붉게 흉하게 그슬린다. 그래서 Douce가 고민하고 있음. (이태수)

11.121. leave it to my hands it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태수); "내 손도 댔다"는 뜻은 아닐까? (김종건); 좀 구체적으로 Douce의 neck & skin이 아닐까? 혹은 "suntan을 어떻게 하지"에 대한 답변인가? (엄미숙) 햇빛에 그슬린 피부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문제를 나에게 맡겨줘라. 즉, 참견하지 말라는 뜻인 듯. (이태수, 송인영)

11. 127. him Boyd's 약국의 늙은 약사. 아마Boyd? (남기현)

11.131. No, don't 외설적인 여성의 상투어 (김종건); 그러나 실제로는 유혹적으로 들림 (전은경)

11.132~33. I won't listen 조이스의 장난. 호머 원작에서는 사이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울리시스가 선원들의 귀를 막지만, 이 대목에서는 울리시스에 대응되는 블룸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사이렌에 대응하는 여성이 귀를 막는다. (강선영*)

11.133. But Bloom? 가끔 블룸의 소재를 확인하는 narrator. 소재뿐 아니라 블룸의 의식에 대한 확인도 나옴 (남기현); 무대 지문인가? Arranger의 말인가? (이태수)

수); narrator는 중요인물인 블룸이 한동안 안 보인다 싶으면 갑자기 그 존재를 독자들에게 각성시킨다. 또한 이 부근에서 Homeric parallel이 많이 눈에 띄는데, 특히 청각에 관한 것이 두드러짐. (김종건)

11.140. sweet tea "sweet of sin" 혹은 "beau"를 연상시킴. (손승희)

11.143. Shrill shriek of laughter 운운 이하 수십 행 낭독의 배음(背音)에 “사이렌”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해일처럼 휘몰아 차오르고 빠지는데, 이런 비현실의 극한 연출은 리얼리즘의 왜곡인가, 아닌가? 차후 “Circe”장의 판타지를 예고하는 독법(讀法)인데, 텍스트를 표면 의미로만 읽는 수준에서는 단연 과장으로 비침. 그러나 그런 평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조이스의 책략일 것. (김길중*) 녹음을 들어보면, 목소리 크기와 속도가 마치 음악처럼 pp→p→f→slow ending으로 흐르면서 한 매듭이 지어지는 느낌이 든다. 환희, 욕정, 쾌락이 웃음소리와 함께 강해졌다가 다시 사그라드는 패턴을 뒷받침하는 듯. 말소리가 곡조의 흐름처럼 들리며,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두 여급이 차를 서빙 받고, 우리고, 마실 때까지 나누는 이야기들이다. (손승희)

11.148. And your other eye Anglo Irish로 "nonsense"를 뜻함 1890년대 music hall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던 용어로 "wink"를 뜻함. 159행에 반복. (남기현) love & affection의 대상을 뜻하는 것 아닐까? (김길중)

11.149~50. Aaron Figatner's name~ 조이스는 어떤 의도로 Figatner→Figather→Gathering figs로 계속 변화시켰을까? (송인영); 성경에서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세를 도와 여러 이적을 행한 인물로 나옴. 예를 들자면 지팡이 끝에서 꽃을 피우고 아몬드 열매를 맺음으로써 아론이 최고제사장임을 증명하거나. 파라오 앞에서 뱀으로 변해 파라오의 마법사의 뱀을 잡아먹었다고 함 (정리자) 한편 fig는 성경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자를 뜻함. 무화과는 잎은 무성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로 간주되었음. (정인경, 남기현); Aaron Figatner는 "다이아몬드 세공업자이며 보석상"(G)이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 모으기"라는 뜻의 Gathering figs는 무화과 열매의 크기가 보석과 같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 문장을 성경의 인유로 본다면 (마태 21:19, 누가 13:6, 야고보 3:12, 요한계시록 6:13) 무화과는 생산하지 못하는 '불임'을 상징한다. 특히 마태복음에는 예수가 열매를 얻지 못한 무화과나무에 대해 저주를 내린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할 때 조이스는 '보석 수집'을 무화과 열매를 모으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달리 말하면 조이스는 이 문장에서 보석으로 형상화돼 있는 물 질주의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다. (박진훈*); 무화과에 담긴 의미가 혹시 곧 이어 나오는 Prosper라는 이름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닐까. Prospero는 *The Tempest*에서 마법에 능통한 the Duke of Milan의 이름이기도 하지 않은가. (유두선); Prosper Lor's Huguenot name에서 휘그노는 16~17세기 프랑스 신교도를 말한다. (남기현); Eden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 Eve가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가릴 때, 무화과 잎으로 가림. Eve와 관련이 있고, Sin을 상징하는 것 아닌가. (전은경, 강선영); Figatner라는 이름에서 무화과를 연상하는데 무화과는 고대 이집트, 로마, 이스라엘 등지에서 강장제로 쓰였던 과일임. 강장제였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춘약으로 통용되기도 했을 것임. 씨가 많아서 풍요의 상징이기도 했었으므로 이러한 속설이 전혀 상관없지는 않은 듯함. 그리고 성경에서는 원죄와 연관되어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기도 함. 애초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따먹은 지혜의 과일이 무화과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과나무로 바뀌었다고 하므로 무화과는 인간을 유혹하는 과일이었던 셈. 이 어구가 사용된 단락이 욕망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상관성을 지닌 것으로 보임. (이인기); <The fall of Man>의 내용을 다룬 Genesis 3 : 6~7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 구절에서 죄(sin)로 말미암은 인간의 타락은 "apple....sweetness"의 단어를 통해 전달됨. 특히 7절, "so they sewed fig leaves together and made coverings for themselves"에서 "fig-together"라는 단어가 보이고 이것은 U에서 "fig together... gathering figs"의 구절들과 관련이 있어 보임. 어쨌거나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 잎을 모은 이유는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는 죄를 감추기 위해서다. 이것을 불륜과 연관짓자면, 몰리와 보일런의 밀회를 알고 있는 불륜이 Aaron의 이름을 보고 죄지는 이브와 무화과 잎을 연상한 것 아닐까? 이때 "Aaron"은 모세의 형, 제사장, 희생제물, 죄 사함, blood animal 등의 의미를 지닌다. U에서 희생양의 이미지를 불륜에게 부여하는 대목인 "BlooMe? No Blood of Lamb...Christ"(U 8.9)은 성경에서 "The Lord God made garment of skin for Adam and his wife and clothed them"(Genesis 3:21)

을 떠올리게 하는데, 여기에서 "skin"은 동물, 특히 양 가죽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는 물론 "killing lamb→blood"가 전체로 깔린다. 이것을 불륨과 연결시키면, "skin→Blood of Lamb→Bloom"의 연결고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사실 8장에서 불륨을 서술하는 대목을 살펴보면 sweet 이나 blood of lamb 부류의 단어들이 자주 동원되고 있다. 예를 들면, "pineapple, sugarsticky, sweet, saved, blood of lamb, blood victim, sacrifice, burnt offering" 등이 그러하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불륨이 보일런과 폴리의 죄의 달콤함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은연중에 Blood of Lamb (Christ)의 이미지를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것은 아닌가? (이상 정인경 메모 정리), (성경구절은 NIV에 의거함)

11.151~ 55. bluerobed, white under Virgin Mary의 성의. Gerty의 옷 색깔과 같음. "Those today"이하 내용은 불륨이 오후에 도서관에서 여신상을 관찰하려던 일이 멀리건과 스티븐 때문에 방해받았던 것을 의미함. 이 대목에서 "white"는 몇 줄 아래의 "rakes"와 대조되면서, 순결의 이미지가 오히려 시선을 유혹할 수 있음을 의미. 유혹은 "Sirens"장의 전체 주제. "rakes"는 Hebrew English로 "lots"의 뜻. "her white"의 "her"는 Virgin Mary 인가 아니면 도서관의 여신상인가? (남기현) "white"는 불륨에게 sexual 한 것으로 여겨진다. 부인 속옷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함. (김종진); Stephen Hero에 나오는 "Ivory Tower"의 이미지를 참고할 만함. "white"는 성모를 찬양조로 묘사할 때 동원되는 색이지만 한편으로는 성적인 유혹의 이미지를 담고 있기도 함. (김길중); 조이스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성과 속의 뒤섞임의 재현을 볼 수 있다. 이 성/속의 대비를 "blue"와 "white"의 색깔로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며, "blue"는 성스러운, "white"는 육감적인 "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By Bassi's blessed virgins.... Bluerobed, white under, come to me"의 문장에서 "white under"와 "her white"(155행)를 여성 속의 속옷(underwear)으로 본다면 불륨이 보았던 "virgins"는 성/속이 결합된 존재이다. 이 문장에서 "come to me"의 어구는 사이렌의 유혹적인 소리처럼 들린다. 이어지는 "God they believe she is: or goddess"의 문장에서도 "God"는 성스러운 신인 반면 "goddess"는 세속적이며 유혹적인 여신으로 대조를 이룬다. A Portrait에서 birdgirl에 관한 묘사가 나올 때, 묘하게 "white+blue"가 섞이고 있음. (전은경*); Kate Chopin의 The Awakening에서도 white+blue는 virgin의 색으로 다루어짐. (강

선영); Kate Chopin도 Catholic이었음. (남기현); 그러나 후에 Chopin은 가톨릭의 교리를 도그마로 여기고 거리를 둠. (정리자)

11.156. The sweets of sin. Sweet are the sweets. 달콤함, 또는 아름다움을 속된 것으로 죄악시하고 경계하는 가톨릭의 기본적 태도에 대한 불룸의 회의적인 생각이 담겨있는 문장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으로 이 문장을 읽는다면 “달콤한 것은 죄”로 인식되어 있지만 “달콤한 것은 역시 달콤한 것이지”라고 불룸이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Of sin”(157 행)이라고 한 것을 보면 불룸이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의 생각에 완전히 함몰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짙막한 이 어구는 음악에서 'decrecendo'(점점 약하게)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불룸의 생각에 대하여 반사적인 여운을 남기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전은경*)

11.158~60. "Douce with Kennedy your other eye." "your other eye"를 "wink"로 본다면 여기에서는 Boyd 약국의 노인과의 능글맞은 윙크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Douce와 Kennedy가 서로 마주보았다는 의미인가? 160행 "signals each other"로 보아서는 서로 눈으로 신호를 보낸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하다. (이태수, 전은경, 남기현)

11.162. "Ah, panting, sighing sighing, ah, fordone, their mirth died down" 여기에서도 두스 양과 케네디 양 두 여성이 웃음의 클라이맥스에서 'decrecendo'로 끝나는 듯하다.

11.169. greasy eyes 173행의 "greasy nose" 와 연관됨. Irish로는 "greasy"를 /gres/로 발음하여 영어 단어 "grace"를 연상시킴. 그 결과, "느끼함+은총+우아"의 복합적인 뉘앙스가 전해짐. "Greece"를 연상시키기도 함. (남기현); 우아한 불룸보다는 느끼한 불룸쪽에 초점이 더 맞춰지는 듯 하다. 그래야 불룸을 놀리려는 의도가 잘 살아남. (전은경); 그러나 아무리 놀려도 불룸은 여전히 "grace"하다. (김길중); 유태인의 코를 묘사할 때 흔히 "greasy"라고 함. (김종건)

11.178. flushed. 이 대목과 이어지는 184행에서 Kennedy를 일컫던 색깔인 "gold"가 "flushed"로 변함. (이태수)

11.185~190. Narrative의 내용이 흐름의 의식의 흐름을 다루면서, 그 단편들을 수합하여 제시하고 있음. (손승희)

11.191. 이후 Simon Dedalus가 등장함

11.193. rocky thumbnails "rocky"는 Homeric word. (김종건)

11.197. Rostrevor 219행에도 나옴. 더블린의 북쪽에 있는 지역. (손승희)

11.198~201. the holy show ~ Bronze whiteness~ exceedingly naughty "the holy show"와 "Bronze whiteness"는 "haughty"의 느낌을 주는데, 이것이 곧 이어 "naughty"한 것으로 바뀐다. (손승희)

11.204~06. You're very simple, I don't think.~ Irish 에서 "don't"는 긍정의 강조용법으로 쓰이기도 함. 그렇다면 이 문장은 결국 긍정문이 되는 셈이다. 그래야 뒤이어 나오는 "He was," "Well now I am"과도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김종건)

11.208~09. what did the doctor order today? "오늘은 무엇을 마실거예요?"의 관용적인 표현.

11.212. Jingle 때 맞춰서 보일런 마차의 소리가 삽입됨. 이는 다음 행 "With the greatest alacrity"와 잘 어울림. 이로써 이 대목 앞뒤에 뒤섞이며 나타나는 장면 효과, 대화 내용, 인물들의 태도 및 행동 등의 특색이 잘 드러남. (손승희)

11.213~17. 한 문단에서 "With the greatest alacrity", "With grace of alacrity", "With grace", "Alacrity she served"의 어구에서 보는 어휘의 반복 사용은 음악에서 변주로 비유될 수 있겠다. (전은경*)

11.219. Mourne mountains 벨파스트의 북쪽 지역에 있는 산. 해변가의 휴양 도시 Fermanagh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음. (김종건)

11.220. But a long threatening comes at last "정말 바라던 것은 결국 오고야 만다."

11.227. Was Mr Lidwell in today? Mr Lidwell는 실제 인물로 고문변호사. 이 대사는 234행의 "Was Mr Boylan looking for me?"와 쌍을 이루어 음악적으로 이중창의 효과를 자아냄. (김종건)

11.228. Round him peered Lenehan 레너헌이 입장. 그는 언제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는 습관이 있음. (남기현)

11.229. Essex Bridge. Yes 서술자는 보일런이 물리를 향해 가고 있는 같은 시간에 블룸이 오먼드 호텔에서 멀리 떨어진 더블린 시내의 에섹스(Essex) 다리를 건너고 있는 모습을 그린다. 블룸이 다리를 건넌음을 "그래, 블룸씨는 에섹스교를 건넜다" (Yes, Mr Bloom crossed bridge of Yessex. 밑줄은 강조)라고 함으로써, 블룸이 물리와 보일런간의 '성행위(sex)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yes-sex) 기막힌 상황을 조롱한다.(엄미숙*); 실제 블룸이 건너는 다리 이름은 Grattan Bridge임. 그러나 다음의 음성적으로 유사하면서 성적 함의가 있기도 한 "Yes" 와 "Yessex"의 단어를 끌어내기 위해 "Essex"로 바꿈. (송인영); Grattan Bridge는 1755~1888년 동안 Essex Bridge로 불렸다. (남기현)

11.240. Miss gaze of Kennedy, heard, not seen 수사적으로 제유법(synecdoche)의 형식인데, 그 과도하게 응용된 비유가 능청스럽다. 즉, gaze는 Kennedy의 자연 속성(natural attribute)이 아니라 그녀가 선택한 행동(act)인데 그 행동이 주체와 혼연일체 하였으므로 결국은 행위자의 속성으로 변용된 셈임. 본 장에서는 오감이 관능적으로 작동하지만, 특히 "응시"의 장면이 많은데, male gaze보다도 female gaze가 압도함. (김길중*); 우선 인물을 gaze와 voice로 분리한 후, 시각적 경험을 청각으로 전이시키고 뒤섞음으로써 복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실적인 표현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종의 공감각적 기법일 수도 있겠다. (이태수) 인물을 시각,

청각, 음성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Joyce 고유의 "viviseptive description"의 예 아닌가. "Sirens"의 특징이 모든 감각을 동원시킨다는 점이고, 여기에서 물론 청각이 중요하긴 하지만 시각적 이미지는 늘 병행해 나타난다. 사실, 12장이 청각적이라고 하지만, 그 계시는 시각적인 글자에 의해 전달되고 있다. (유두선); tuner는 청각만 있고 시각은 없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의할 만 함 그리고 보면, "Proteus"장 서두에서 스티븐이 사물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으로 "ineluctable modality of the visibility," 와 "ineluctable modality of the audible"을 들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임. (송인영)

11.243~44. No glance of Kennedy~ Lenehan이 케네디양이 책 읽기를 잠시 멈출 때를 기다리고 있음. 성적 함의가 있음. "round o"는 마침표 "."를 의미하며 "crooked ess"는 "?"를 가리킴. 그런데 "S"는 이미 구부러져 있는 것인데 왜 한 번 더 "crooked"라고 했을까? (이태수, 남기현, 유두선)

11.245. Jingle jaunty jingle. "Sirens"의 prelude에 나오는 "Jingle jingle jaunted jingling" 모티프는 보일런이 물리를 향해 의기양양하게 마차를 타고 가는 소리와, 물리와 보일런의 정사를 벌일 때 울려댈 물리의 침대소리까지 연상시켜 주는 소리이다. 이것은 서술자도 자주 언급하고, 불륨의 독백 속에서도 계속 나타나는 주요 모티프이다(14번 이상).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물리와 보일런의 4시의 정사가 불륨을 얼마나 철저히 괴롭히고 있는가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11.245행의 "Jingle jaunty jingle"는 prelude의 "Jingle jingle jaunted jingling" 모티프의 변형으로 4시가 가까워 오면서 점점 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불륨과 목표를 향해 돌진해 나가는 보일런이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남. (엄미숙*) 그 진행이 crescendo의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전은경); "Sirens"의 leitmotif로서 반복과 상기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유두선); 광고 용어로 "advertising jingle"은 광고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단위를 말함. (남기현)

11.248~49. Ah fox me ah stork. 여우가 황소를 만나 꿀탕 먹이는 이야기. 이습우화인 "늑대와 학"을 변형시킨 것. 왜 이 우화를 여기에 짧게 삽입시켰는지 조이스의 의도가 궁금하다. (남기현); 레너헌이 간혹 단어의 끝에 /h/ 발음을 첨가시키는 것이 눈에 띄음. 모종의 음악적 효과가 있음. (손승희)

11.251. He sighed aside. "aside"는 여기에서 방백이라는 뜻으로 사용됨. (김종건)

11.252. Ah me! O my! 레너헌은 탄식이나 탄성을 자주 하는 인물임. (전은경)

11.254~55. Greetings from the famous son of a famous father. Simon Dedalus에게 스티븐의 인사를 전해준다면 "famous"를 두 번이나 사용해 그 부자(父子)를 추켜세우는 레너헌. 아침꾼 기질이 드러남. (전은경)

11.256. Who may he be? Simon Dedalus가 뻔히 알면서 모르는 척 묻는 말. 레너헌이 말하는 그 유명한 아들이 스티븐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 어감상 느껴짐. (전은경, 남기현)

11.258. Dry 레너헌이 Simon에게 술 한잔 얻어 마시려고 아들 칭찬을 했으나 실패함. 술이 마시고 싶은 상태임. (남기현); a. 스티븐의 아버지가 메마른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b. 뒤에 이어지는 파이프(성적 상징물)와 관련해서도 dry를 쓴 것으로 보건대, 그리고 작품 전체에서 "wet"이 성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때, 술을 얻어 마시려는 남성(사이렌)의 아부(유희)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Dry"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 (강선영); 술 마시고 싶은 레너헌의 상태 + 아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모두 암시됨 (엄미숙); Simon은 현재 스티븐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학교 다닐 때는 유망한 청년으로 자부심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건달들과 어울리며, 가족과 따로 떨어져 사는 불효자가 되었다. (유두선, 전은경); "dry"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의 의식의 흐름들이 섞여 들고 있다. 독자에게는 괴로운 기법이다. (이태수)

11.262. He had. narrator가 끼어들. 다른 어조가 사용됨. (손승희)

11.264. Mooney's *en ville* and in Mooney's *sur mer*. 더블린에는 세 군데의 무니 주점이 있음 (남기현); rhino는 동전을 뜻함. 코벨소 이빨로 만든 동전을 가리키다가 동전 일반, 즉 돈을 의미하게 됨.

11.268~70. scribe and editor~ editor는 *Freeman's Journal*의 Crawford, "that minstrel boy"는 O'Madden Burke. "the wild wet west"는 Ireland의 서쪽 지역을 일컫는 "the wet west"에다 "wild"를 보탬. 여기에 "the wet west"를 굳이 밝힘으로써, Mayo출신인 George Moore의 노래 가사를 살리고, 더불어 역시 서쪽 지역 출신인 O'Madden Burke 인물을 살리고 있음. O'Madden Burke라고 마지막에 밝혔으면 서 굳이 " ~ who is known by the euphonious appellation of the O'Madden Burke."라고 능청을 부리는 이유는? O'Madden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성(姓)으로 쓰이는 것인데 정작 이 인물은 the first name으로 쓰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아마 그의 실제 이름은 따로 있을 것이다.(아마도 고상한 이름이 아니었을 것이다) 결국 "the euphonious appellation"은 "그 잘난 이름" 정도의 비꼬는 의미로 쓰임. (남기현)

11.273. faraway mourning mountain eye "mountain eye"란 무슨 뜻인지? (전은경*); 앞서 나온 Mourne Mountains와 연결되는 구절임. 북아일랜드의 한적하고, 풍요로운 휴양지의 이름이 "애도하는"의 뜻으로 변형됨. (송인영)

11.274. He see. 주어, 동사의 agreement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럴까. 176~77행의 "Greasy I knows"도 마찬가지 예. (유두선); 1인칭 경우에 "동사+s"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이태수); "Greasy I knows"를 분리하여 동음어를 넣어 보면 "Greasy + I (eye) + knows (noses)"가 됨. 이와 별개의 효과로 1인칭과 3인칭 어법을 뒤섞음으로써 "나"와 "타인"의 의식 구분을 허물고 있음. 문법을 부지불식간에 어기듯, 인물들의 의식이 텍스트 상에서 서로 녹아들어 뒤섞이는 것도 의도적으로 노린 것은 아니라는 인상을 줌. 이러한 정체의 융합은 Gold + Bronze의 뒤섞임이나, 음악 변주의 다양함, 인물과 narrator의 융합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남기현); 1인칭의 내적 독백이 심화되면서 비문법성도 심화되고 있음. (엄미숙)

11.284. at his face his는 tuner를 말함. (이태수)

제 36회 『율리시스』독회

〈모임〉

독회진행자: 손승희

정리자: 송인영

장소: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구관 412호

일시: 2006. 3 18. 오후 2:00-5:30

범위: *Ulysses*, Chapter 11, ("Sirens"), Lines 284~434

참가자: 김길중, 이태수, 전은경, 홍덕선, 유두선, 이인기, 남기현, 손승희, 박진훈,
정인경, 송인영, 이지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학부생)

〈토론〉

11.284-286. "So sad to look at his face, miss Douce condoled" 과 바로 이어지는 "God's curse on bitch's bastard" 의 문장은 두 문장이 모두 장님인 피아노 조율사에 대한 것인데 두 문장은 서로 대조적이다. 앞 문장에서 장님에 대하여 두스 양이 감상적인 동정심을 나타내자 바로 이어지는 문장은 장님의 험악한 욕지거리가 나오는데 이 험한 욕설은 두스 양의 "감상적인 동정심"에 장님이 반박(반발) 하는 듯이 보인다. 두 대조되는 문장에는 '장님'이라는 사실이 두스 양에게는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정도의 현실에 지나지 않지만 장님 본인에게는 험난한 현실이라는 함의가 담긴 듯하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문장이 "Tink to her pity . . ."로 다시 두스 양의 동정심에 대한 언급으로 되돌아간다. 조이스 특유의 지속적인 '전복적인' 전개 방식을 이 대목에서 볼 수 있다. (전은경*)

11.286~88. 오먼드 주점에서는 벨을 울려 급사를 호출함. 급사 Pat이 오는 것을 조각으로 끊어 묘사함으로써 리듬을 살림. Lager는 정찬용 맥주. Diner는 식당의 손님. (손승희)

11.289~90. for jinglejaunty blazes boy jinglejaunty는 형용사, blaze는 동사에 "~s"가 첨가된 것인데, 그렇다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blazes에는 hellish의 의미가 있고, "old Blazes"는 악마를 일컬음. 여기에서는 Boylan의 못된 근성을 암시하는 듯함. (이태수): 10장에서 영국 제국주의를 비판했다면, 11장에서는 시선을 내부로 돌려 개인 차원에서 비교를 하는 듯 하다. 아일랜드인 중에서 정복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들, 예를 들면, 남성, 이방인(보일런) 등이 비판을 받음. 정복자의 대척점에 피정복자가 있고, 아일랜드, 여성, 불륜 등이 피정복자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김길중)

11.291~94. coffin 왜 "coffin"이라고 했는가? 일차적으로 Hammer와 string이 배열되어 있는 피아노 내부를 가리킴. (손승희); 죽음이나 진배없는 현재의 삶을 의미? (박진훈); (who?)라고 쓴 것으로 보아 행동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함. (이태수); lid는 곧 등장할 변호사 George Lidwell의 이름의 "Lid-"이나 Lydia Douce의 "Lyd-"의 변형을 연상시킨다. 이미 앞의 37행에서 "Lidlyd"라는 변형이 나왔음. (남기현) oblique triple은 그랜드 피아노를 지칭. 그랜드 피아노의 뒷면이 세모와 비슷한 것에서 착안함.

11.295~300. Flower는 불륜의 가명 + 꽃. Language of flow에서 flow는 flower에서 ~er을 생략한 것으로서, 말의 흐름과 의식의 흐름을 동시에 나타내는 일종의 pun임. 흰색 daisy는 순수, 색깔이 있는 것은 beauty를 상징. (손승희); "I"는 누구인가? 내면독백에서는 가끔 1인칭과 3인칭이 자유롭게 뒤섞이며 동일인을 지칭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농담의 어조가 느껴진다. Sympathy가 강해질수록 아이러니컬하게도 상황은 우스꽝스럽게 변함. Simon의 노래를 들으며 불륜의 심정은 더욱 절박해지는데, 제 3자가 보기에는 감상적으로 보인다. (홍덕선); Hely's에 근무할 당시의 불륜의 "I"와 현재의 "Bloom"이 섞이고 있고, 게다가 Martha의 말까지 등장하여, 불륜의 의식 속에서 함께 섞이고 있다. 한 인물의 말을 텍스트 내의 다른 정황 속에 삽입시킴으로써 묘한 수사학적 효과를 보고 있다. (김길중); wise Bloom의 "wise"와 후에 349행 "smart Boy," "smart shoes"의 "smart"가 대조되고 있다. Nestor 장에서 Mr Deasy의 어깨를 묘사하며 "wise shoulder"라고 한 부분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남기현) ; Hely's에서 근무할 당시를 떠올리면서, 불륜이

Daly's 상점에서 편지지 두 장을 사고 있는 대목임. 상점 안에 붙여져 있는 Mermaid 담배 광고를 바라보다가, 창문 너머로 보일런의 마차가 지나가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됨 (송인영)

11.300. Smoke mermaids 재미있는 연상을 많이 끌어낸 대목. mermaids라는 담배를 사세요 하는 광고 포스터에서 연기를 피우는 인어/ 연기를 피워서 (사이렌의 마녀 역할로서) 유혹하고 있는 인어를 쫓아내는 방식/ 인어여 담배를 피워라/ 인어를 피우세요...smoked mermaids... 훈제 인어(?)/흡연과 성행위의 자연스러운 연상 고리/ 298행에서 language of flow (<- language of flower) 더니 310행의 Hair streaming의 분위기로 연결된 측면/ 인어가 오염한 자태로 유혹하는 이미지~몰리의 딸 밀리의 직업으로서 photo girl은 인어 복장을 하고 관광객과 사진을 찍는 일임 등이 지적되는 등 오늘의 압권이었음. (손승희*) smoking에는 "sexual and attractive"의 뜻이 있음. (이지은)

11.302. jaunting car 마차의 일종인 outsider의 별칭. (손승희)

11.303. Again U 구판에는 없는 단어임. (김길중)

11.306~08. Twopence ~ And four 불륨이 편지지 두 장과 편지 봉투 두 장의 값을 치르는 대목. 점원이 "2 pence 만 내셨네요. 4 pence 더 내세요."라는 요지의 말을 하고 있음. (손승희); 그러나 17장에서 불륨의 6월 16일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편지지와 봉투 값으로 2 pence만 지불한 것으로 나옴. 그렇다면 308행의 "And four"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가 문제. Penguin edition과 독일어본 (Hans Wollschlaeger 역)에는 "And four"를 점원의 대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서술문의 일부로 처리했음. 그렇게 보면, 불륨이 바로 이 대목의 앞과 뒤에서 보일런의 밀회 시간인 4시를 떠올리는 것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음. (정리자)

11.309. Bloo smi qui go 불륨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단어들도 반으로 잘려질 정도임. (손승희) qui 는 Latin어로 "who"로서 일종의 pun 기능을 함. (이태수); ternoon 에서 ter~는 "tri"의 뜻으로 불륨과 보일런이 세 번째 우연히 만난 것, 세 글자, 세 배 승산이 있는 마권 등을 암시함.

11.313. long in dying: dying은 "희미해진다" 는 뜻 외에 죽음과 coffin을 연상시킨다. (유두선)

11.316. dying call 조종(弔鐘) (손승희)

11.318. bothered deaf 의 의미도 있음 (G) "deaf"라는 뜻을 지닌 Irish 단어인 "bogar"를 차용하여, 이와 비슷한 "bothered"를 활용한 것처럼 보임 (김길중) 286행에서 Pat가 식당과 주점의 문 쪽으로 향했다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오먼드 가게가 식당과 주점으로 구분되어 있고, 여급들은 bar에서, Pat는 식당에서 근무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남기현); 그렇다면, Pat가 식당 손님이 주문한 lager beer를 bar에서 건네 받아 식당으로 가져가며, 그 술값도 손님 대신 Pat가 bar에 전달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은경, 홍덕선, 유두선)

11.321. a voiceless song 안쪽 살롱에서 Simon Dedalus가 피아노를 치는 동안, 다른 방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음 (손승희) voiceless song 은 melodyless? Lyric만 있다는 뜻인가? (전은경); 목소리의 주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인가? Simon이 노래를 부르지 않고 피아노만 치고 있다? 노래 부르는 사람 없이 피아노 멜로디 소리만 들린다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Text에 실린 가사는 narrator가 시각적 확인을 위해 제시한 것이 된다. 녹음테이프에서도 화자가 가사를 멜로디에 실지 않은 채 낭독하듯 읊었다. (정리자)

11.323. duodene 12음계?

11.334-36. She answered, slighting~ 레너헌은 여급에게 관심을 두고, 여급은 보일런에게 관심을 두고 있음. 여급이 레너헌을 냉대하는 대목. "Lady like" 구절은 106행과 유사함. (손승희)

11.340-342 conquering hero....Bloom, unconquered hero Bloom, unconquered hero "conquering hero"와 "unconquered hero"가 대조됨. (손승희); 정복하는 제국 영국과 정복당하면서도 꺾이지 않는 식민지 아일랜드의 공적 역사가 오쟁이 지우는 가해자

보일런과 오쟁이 진 피해자 불륨의 개인 관계와 절실히 병치되고 있음. 조이스식 탈식민지적 상상력의 좋은 사례로 봄. (김길중*) 불륨에 대한 "unconquered hero"라는 호칭에 어울리게 그의 소심하고 조심하는 태도를 "Black wary hecat"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문장에서 검은 상복을 입은 불륨이 오몬드 호텔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은 검은 고양이의 사뿐하고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로 비유되어 있다. (전은경*)

11.345. I heard you were round 보일런이 여급에게 인사하는 말인가? (손승희)

11.347. outsmiled 보일런의 관심을 끌기 위해 케네디와 두스가 경쟁적으로 미소를 지어 보이는 대목 (손승희)

11.352. Wire Ascot race의 결과를 알리는 전보 (손승희)

11.359. Dinner fit for a prince 344행과 연결됨 (손승희)

11.365. Shebronze Douce를 일컫는 방식이 마치 동물의 암컷을 지칭할 때와 유사함. 예를 들어she cat, she goat 등의 경우를 연상시킴. (이태수)

11.368. Fine goods in small parcels. 작은 사람이나 물건이 실제로는 실속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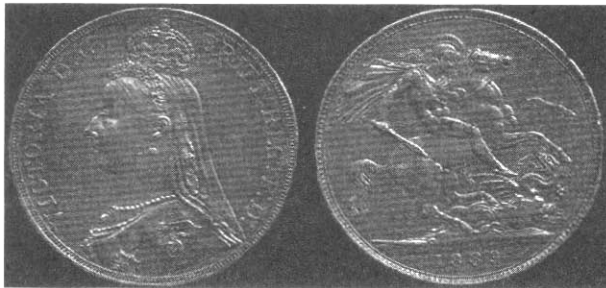
11.383~85. Fair one of Egypt Miss Douce, Cleopatra, Idololes("The Shade of the Palm" 중의 "O Idololes, Queen of the Eastern Sea"의 노래 속의 여주인공), Siren, Molly 등을 지칭하며 이들은 모두 배신(Betrayal)의 여인들. Clock clacked: clack, clock, cock도 예수에 대한 배신을 암시하고 있다. clock(cock, clock)의 음악적 유포음들(dissonance). "Look to the west"는 "서쪽(그녀의 정부가 있는 곳)을 경계하라." "For me"의 me는 노래 속의 남자 주인공(East의 애인). (김종건*)

11.415. no sawdust there 깔끔한 고급식당이어서 바닥에 톱밥을 깔지 않음. (남기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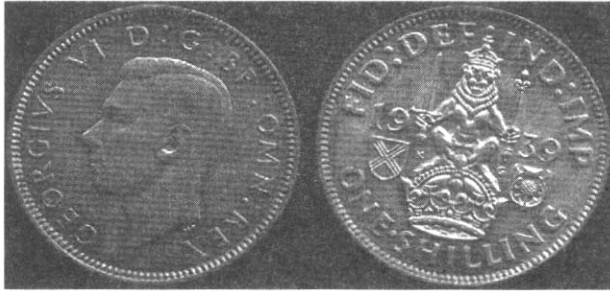
11.371. a broad coin broad coin이 액수가 크다는 의미뿐 아니라크기가 큰 동전일 텐데, 한 crown 짜리 금화일까 반 크라운 짜리 은화일까... 그럼 아일랜드 주화의 종류에는fortune을 포함해서 어떤 것이 있을까~ 혹시 gold와 bronze로 지칭되는 두 여급은 금화와 동전과도 관련되는 것은 아닐까~ 어쩐지gold - Kennedy가 copper - Douce보다 비싸게 노는 것 같기도 하네요~ladylike나오는 대목과도 (336행, 106행) 연관이 될 듯하고, 347행에서도 sister bronze의 미소가 더 노골적인 것을 봐도 그렇고? (손승희*)

<1971년 화폐개혁 이전의 British Currency>

1 farthing (1/4 penny), 1 penny (별칭: copper), 2 pence, 3 pence (thruppence),
1 shilling (별칭: Bob), 1 florin (2 shillings),
half crown (2shillings 6 pence), 1 crown (=5 shillings),
half sovereign (10 shillings),
1 pound (20 shillings, 1 sovereign),
1 Guinea (1 pound 1shilling)



crown(1839)



shilling (1939)

참고: www.dicamillocompanion.com/British_Money.

11.375. I plunged a bit. 보일런은 "경마에 돈 좀 갖고 뛰어들었지"말하면서 "Not on my own, you know. Fancy of a friend of mine"이라고 덧붙이는데, 친구의 제안을 받은 것이라면 누구일까? 혹시 몰리? 독일어판에서 여자 친구라는 단어로 나오는 걸 보아도 그렇고...you know가 주는 효과로 보아도 이야기 듣던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인 듯함~ 427행에서 잔돈을 집어 들고 나가는 보일런의 모습은 약속 시간에 맞추어 서두르는 점은 감안하더라도, 돈을 잘 쓰는 모습으로 여급들에게 인기 있는 그의 이미지와 잘 안 맞는 듯도?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 돈으로 마권을 사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손승희 *)

11.383. Fair of Egypt Douce를 말하며, 이후 나오는 노래의 가사는 Boylan과 Molly를 암시함. 4.84의 "Somewhere in the east" 및 4.97의 "Molly's new garters"와 연관시켜 볼 수도 있다. 11.413의 "her nipped elastic garter"에서도 마찬가지로 "garter"는 성적 object임. (박진훈, 남기현); 그러나 결혼식에서 신부는 파란색 garter를 착용함 (정인경)

11.387. ahunger ~ ahumming 여기에서 "a~"를 형용사나 부사를 만드는 접두사로 본다면 각각 "hungry," "hummingly"의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전은경)

11.393. "I couldn't do" 보일런이 일으키는 것처럼 나는 몰리의 성욕을 부추길 수 없다/ 보일런이 시간이 되어도 가지 않고 애를 태우게 하는데 나는 무기력할 뿐이

다/ 블룸은 물리를 만날 때 미리 와서 한참 기다리곤 했던 사람인 만큼 그와는 대조적으로 보일런은 물리를 기다리게 하면서 성욕을 돋우게 한다 (나 블룸은 그렇게 못했는데) 등등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손승희*)

11.396. Flora's lips 입술, 꽃, Boyland이 꽃고 있는 꽃, 노래 가사 등 여러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11.419. his chalice 술잔을 chalice 에 비유하고 있음. (손승희); "the Holy Grail"을 연상시키며, 이는 거사를 앞두고 있는 Boylan의 행각을 romance 적인 전통에서 조롱조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함. (유두선)

〈토막존평〉 "Jinglejaunty blazes boy"에 관하여

"jinglejaunty blazes boy"에서 드러나는 바, 기의(signifier)의 굴레를 은근슬쩍 벗어난 기표(signifier)의 유희(play) 혹은 희화(caricature)가 엉뚱하고 담대하고 의기양양하다. 이 'jinglejaunty'라는 합성 신조어는 여기서만 딱 한번 나타나지만, 사실상 사이렌 장 최고의 keyword 혹은 catchword라 할 만하다. 이른바 '전주문'(前奏文, overture)에서 "Jingle jingle jaunted jingling"(11.15)로 서두가 던져진 이후 이 시점(11.290) 앞 혹은 뒤에 닮은 jingle과 jaunty가 부끄럼 모르고 떠돌고 있으니, 한 번쯤 요란하게 부둥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언어 모티브(verbal motif)는 '정복하는 자'(11.340)의 깃발처럼 전(全) 편에서 야하게 나부끼고 그 통절함은 온통 '정복의 대상'(11.342)인 주인공, '오후네 시의 위기'에 허덕이는 블룸의 몫이다. 어법상 'jinglejaunty'의 조어(措語/造語)원리는 'gun-happy'와 같다. jaunty부분은 jaunting car의 jaunty와 보일런처럼 적나라하게 여성편력에 나선 자의 '으스대는 품새' (gallantry)의 뜻이 봉합되어 있다. 후자는 어원상 genti, genteel에서 유래한다. 그런데 보일런의 'jingle'은 사실적이라기보다 서술자(narrator)의 예단적 상상으로, 보일런이 '낭만의 눈썰매인양' 타고 가는(요즘 사람 택시 타듯 탑승료를 내고 탔을 것임) jaunting/jaunty car가 눈썰매처럼 jingle bell을 달았다면 났음직한 소리로서, 반석 같은 옛 영웅시대의 Penelope 침대와 현대적으로 상응하는 Molly Bloom 침대의 빠끄덕거리는 소리, "Calypso" 장(4.59) 이후 툼툼이 온 종일 울려대는 소리

에 화응한다. "blazes"는 새겨 생각할 줄 모르는 야한 행동가 보일런 이름의 B자 두운에 맞춘 세인(世人)의 별칭인데, 본 장의 '펜 잡은 위임서기' (staging scriptor of the chapter)가 별칭의 원래의 뜻을 환기시키려는 듯 굳이 소문자로 격하시켰다. 다음의 "boy"는 두(頭)문자 외에도 "Plasto's high grade ha." (4.70)의 잘린 hat인 "ha"처럼 Boylan이 잘리고, 그 결과 뜻마저 원래 어른이 철없는 '애송이'(boy)로 격하되었다. (김길중)

제 37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독회진행자: 손승희

정리자: 송인영

장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의실 7동 304호

일시: 2006. 4 15. 오후 2:00-5:30

범위: *Ulysses*, Chapter 11, ("Sirens"), Lines 419~530

참가자: 김종건, 김길중, 이태수, 전은경, 홍덕선, 유두선, 손승희, 박진훈, 정인경,
송인영,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영문학개관 III> 수강생 다수

〈토론〉

11.419. ~ drank off his chalice tiny ~ 이 대목에서 Boylan은 다 마신 "chalice"를 떨어내고 잔돈을 알뜰히 챙겨가는 것으로 그려진다. 과거 romance의 주인공에게나 적합한 단어인 "chalice"를 Boylan 묘사에서 반복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tiny"의 문법상, 의미상의 역할은 무엇인가? (유두선); 흑미사의 false consecration에서 사용되는 성배를 연상시킨다. 비슷한 예로 Mulligan's a bowl of leather, Bolyan's beer cup 등이 있으며, Mulligan이나 Boylan 모두 "the essence of vulgarity"의 대표적 인물들이다. (김종건*); 기독교와 이교도 (아일랜드 전설)의 두 전통이 혼합된 것이 romance임. Chalice란 성배 외에도 여러 종류의 용기를 일

권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세레자 요한의 두상을 올려놓은 Herodias의 쟁반을 chalice 라고 했음. 여성의 정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중세 romance의 motif가 U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그 한 예로 Molly의 정절 문제를 들 수 있다. Romance의 또 다른 특징은 endless adventure라는 점인데, 이야기는 끝나도 모험은 계속 이어지는 특성을 말한다. 마치 U가 "Penelope"장으로 끝나기는 하지만 인물들의 이야기는 작품 밖에서 계속 순환하고 지속할 것이다. Molly의 최후 선택이 모호하고 지연되는 것은 romance에서의 endless adventure를 연상시킨다. Epic이 남성 hero를 전면에 내세운다면 romance는 여성인물을 전면에 부각시킴으로써 일종의 "romantic epic"을 구성한다. (손승희); 종교 외의 다른 의미도 찾아볼 수 있음. 예를 들어, "The Sisters"의 Father Flynn은 죽은 후 "idle chalice"를 쥐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때 "idle"은 고대어에서 "useless"의 뜻으로 사용되었음. (홍덕선) 이 대목에서 "tiny"는 Boylan의 어리석음을 화자가 mocking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처럼 보임. (이지은); 술을 마시는 동작을 포함한 Boylan의 행위의 특성을 요약해서 서술해주는 형용사로도 볼 수 있겠다. 즉, 그의 행동 전체가 "tiny"하다는 것이 조이스의 판단인 것처럼 보임. (김길중)

11.432. Got the horn or what? "뿔났어?" "Are you sexually aroused?" (김종건*)

11.432. Wait. I'm coming. 11.393 "Wait, wait. Pat, waiter, waited."와 연결 지어 "wait"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으로 Boylan은 물리를 기다리게 함으로써 욕망을 증폭시키고, Pat는 시중을 들고, Bloom은 급사의 서비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등 여러 인물의 처지가 중첩되어 있는 대목. 11.40의 대목, 즉 "The Croppy Boy"의 가사 7행과 겹치는 면이 있으며, 실제 행위와 의식 속에서의 "기다림"을 동시에 의미함. (손승희); 특별히 이 대목은 Boylan이 Molly에게 마음 속으로 건네는 언사, 즉 "기다리시오, 내가 곧 가오"라는 말로 들리기도 한다. (유두선); 의식의 흐름에서 누가 말하는지 이름을 밝히는 데 조이스는 특히 인색하다. 대조적으로, Hemingway는 친절하게 화자의 이름을 밝힘으로써 독서 흐름을 순조롭게 함. (김종건); 작가는 흔히 말과 의식의 차이가 없을 경우 화자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의식의 흐름 속의 언술내용이 당사자의 말인지 외부 사태를 일컫는 것인지 모호할 경우, 그 경계를 선명히 밝히지 않을수록 진실에 더욱 근접해갈 수도

있음. (이태수); 상대의 의식과 겹칠 경우 경계를 확실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정교하고 정확하게 사태를 묘사하는 장점이 있음. 조이스 외에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에서도 누구의 의식인지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예컨대 *To the Lighthouse*, *The Waves*와 같은 작품에서는 첫 페이지부터 의식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다. (전은경*); 여기서 wait의 드러나지 않은 주어가 여러 계통으로 갈라지는데 일방이 타방에게 wait하라고 명령하기도 하고(Bloom, 또 다른 이?), Pat는 다른 이 아닌 waiter라고 설명도 하고(narrator), 따지자면 정신이 없는데, 일목요연한 일원적 서술을 접고 신바람 내는 듯하다. 그러니 wait의 행위자(agent)가 애매해지는 것은 당연하고 또 책략으로도 보인다. (김길중*)

11.339. ~ put the barleystraw in that Judas Iscariot's ear: Iscariot은 Reuben J를 지칭.(손승희); Odysseus가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Sirens의 노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연상시킴. (유두선); 독일어 번역본에는 "불을 붙이다", 즉 "흔내주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 (독일어 번역본)

11.440. soothing 앞서 Mr. Dedalus의 노래의 연민의 결과인 듯: "With faraway mourning mountain eye." (11.273 참조) (김종건*)

11.445. Not make him walk twice. His corns. Four now Bloom 의 신중성(prudence)과 특성이 드러남. "Cyclops" 장을 참조할 것. (김종건*); 급사 Pat의 발에 티눈이 네 개 났다는 뜻인가? 혹은 "그를 두 번 걸음시키지 말아야겠군. 티눈으로 고생하잖아. 지금 4시가 되었군"의 뜻인가? 티눈 난Pat를 염려해주고, 음식 주문하는 일에 신경을 돌리려 애를 쓰지만, 몰리의 밀회 시간인 4시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블룸의 심경이 절절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아닌가. 음식 주문하려는 찰나에 정각 4시가 되었다는 말인 듯함. (정리자)

11.446. How warm this black is. ~ Refracts (is it?) heat. 4시가 되자 블룸의 심경이 더욱 혼란스러워지면서 몸이 후덥지근해짐. 그러나 블룸 자신은 열이 나는 이유를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현상 탓으로 돌리며, 짐짓 자신의 혼란스런 심정을 외면하려 함. 그러나 그러한 회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Absorb" 대신 반대의 뜻을 지닌 "Refract" 동사를 사용한다는 데서 잘 나타나며, 이러한 혼란스런 단어 사용으로 그의 심리적 혼란이 더욱 선명하게 부각된다. (송인영); (is it?)은 누구의 말인가? 불륜 스스로 의문스러워 자문하는 것인가? 인물이나 narrative에 간간히 간섭, 혹은 중재하는 화자의 목소리인가? (이태수); 이런 식의 화자의 개입은 519행 "As said before~"에서도 나타남. [아래 11.519을 볼 것] (홍덕선)

11.450. He ambled Dollard. He가 Dollard 자신을 가리키는 것 맞는가. 그렇다면, 동일 인물을 의식의 주체("He")와 외양의 객체("Dollard")로 작가가 장난스럽게 나눈 것. (김길중*)

11.450~1. (hold that fellow with the: hold him now) the뒤에는 10.905의 "bad trousers"가 생략되어 있음. 이는 Simon의 말로서 "괴상한 바지를 입은 저 작자를 붙잡아라"는 뜻이지만 "hold"에는 "behold"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서 "저 자를 보아라!"로 해석할 수도 있음. 독일어 번역본도 "look!"으로 옮김. (이태수); behold는 게르만 계통 어휘로서 hold에 강화 접두사 be-가 붙은 것으로 '잡다' '꼭 잡다'가 고래로 기본 뜻이고 '본다'의 뜻이 들어갈 구석이 원래는 없음. behold가 '본다'는 뜻이 되는 것은 '눈으로 붙들다' 즉, hold in view를 거쳐온 발전인데, Shorter Oxford에 의하면 유독 영어에만 있는 현상이라 함. 독일어 번역은 이런 이해를 전제로 의역한 것으로 보임. 이태수 교수는 아일랜드는 말의 변용이 자유자재한 나라(!)이니까, hold로서 behold를 뜻하는 특수 향토 어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입장인 듯한데, "hold" 했으니까, 아무래도 일단 '잡다'의 뜻으로 보고 싶음. 김종건 교수의 번역에 물론 '붙들다'로 되어있고, 올 가을 서울 조이스 학회에 오는 북경의 Liu Xiang Yu(劉象愚) 교수도 그냥 '꼭잡다(?)'로 번역하고 있음. bad trousers 즉 baggy trousers는 Dollard의 특징이므로 작가가 따로 밝히지 않아도 독자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정보로 취급됨. 그러니 독자의 머리 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구태여 다시 밝힐 필요가 없음. (김길중*); 11.470행에서 회상되는 음악회 장면에서 둘라드는 현재의 baggy trousers와는 반대로 몸에 꼭 달라붙는 무대복을 입은 것으로 그려지고 있음. (전은경)

11.459. Love and War "*Love and War*"는 사이먼 데덜러스의 말인데 11.553줄 블룸의 의식 속에서 다시 나오는 어구로서 11장의 주요 주제이기도 하다. 이 주제는 사이먼의 노래와 벤 돌라드의 노래를 통해서 나타난다. 사이먼이 부르는 "마르타"(Martha) 오페라에서 나오는 노래는 순수한 사랑을 호소하는 서정적인 노래인데 비하여 사이먼의 노래가 끝난 후 벤 돌라드가 부르는 "까까머리 소년" (*The Croppy Boy*)은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전투적인 노래로서 이 두 노래는 서로 대조를 이룬다. (전은경*)

11.462~65. She drew down pensive~ Homer와의 상응관계가 눈에 띄는 대목으로 Douce는 사이렌 Parthenope에 해당. Parthenope는 올리스스를 유혹하려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바다에 몸을 던져 익사한다. 마찬가지로 Douce는 garter를 튕기면서까지 보일런을 유혹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며, 보일런이 떠나자 엄습해오는 실망감과 의구심에 심리적으로 익사하고 만다. drew의 목적어는 depth of shadow로, 블라인드가 내려오면서 실내에 그림자가 지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하면서, 2차적으로 Douce의 실망감, 즉 감정의 파고를 의미함. 이 그림자가 eau de Nil이 되어 Douce의 머리 (about her bronze)까지 차오르고, 급기야 bar까지 침수시킨다 (over the bar) (송인영); 한편 "bald stood by sister gold, in exquisite contrast~"에서 "contrast"란 어휘가 두 번 되풀이되어 나오는데 대조를 이루는 자는 여금인 케네디 Kennedy 양과 웨이터인 패트 Pat 이다. 이 장면에서는 케네디 양이 금발의 머리를 지닌 것에 비하여 패트는 대머리인 점에서 대조를 이루지만, 또 하나의 대조적인 면은 케네디 양은 싸이렌이라는 소리의 요정을 구현하는 인물로 청각에 호소하는데 비하여 패트는 귀머거리여서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전은경*)

11.473. by Japers by Jesus의 뜻. 약화된 Dublin방언으로 "mild oath"의 역할을 함. (김종건*)

11.483-84. He saved the situa. Tight trou. Brilliant ide. 왜 단어의 후반부 음절이 잘리는가? Bloom의 급한 마음을 반영한 것인가? (김종건); staccato적인 음악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전은경); tight하게 조이는 느낌을 시각화한 것? (강선영); 462행 이하에서 bar까지 차올랐던 eau de Nil이 이 시점에서는 saloon에까지 넘쳐흘러

Father Cowley를 역사시키기 직전인 것 같다. Father Cowley가 컷볼까지 붙어졌다는 묘사는 그가 역사 직전에 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수면 위로 오르락 내르락 하느라 숨이 막힐 것이고 따라서 단어들을 끝까지 발음할 수 없음이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이와 대조적으로 다음 행에서 Bloom이 바위 위에 있었다는 표현이 나오고, 이는 상징적으로 블룸이 역사의 위기를 모면한다는 것을 보여줌. 그리하여 시공간을 초월하고, 혼합해서 살펴보자면, 안전한 바위 위에 있던 블룸이 당시 곤경에 빠진 돌라드를 구해주었다는(saved the situ) 이야기가 성립함. (정리자)

11.486. for a very trifling consideration "보잘 것 없는 보수." 다음 행의 "other business"는 헛 옷 장사. (손승희)

11.496. ~ has left off clothes~ "left off"는 "남겨진"이라는 뜻의 형용사. Molly의 과거지사를 이야기하면서 현재형 "has"를 사용한 것은 이 구문이 광고판의 문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김종건)

11.504. ~Yes. Is she alive?...drummajor....Irish....Buccinator muscle...My Irish Molly. 여기 모인 Fr. Cowley, Simon, Ben 사이에서 Molly의 identity에 대해 의혹이 제기됨. "Irish?"는 "Cyclops"에서 Bloom에게 던져진 질문, "What is your nation if I may ask?" (p. 272)와 동일한 맥락을 지닌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일랜드의 민요의 여주인공 "My Irish Molly"에서 파악되는 셈. "drum-"에서 파생되는 Molly의 목소리는 "Buccinator muscle"(나팔근, 혀근, a flat thin muscle in the wall of the cheek)로 연결. Buccinator의 Latin어원은 "buccinare"로 "blow a trumpet"의 뜻. 이는 잇따른 Simon의 익살: "~you'd burst the tympanum of her ear...(11.536)"와 연결 됨. (김종건*)

11.519. As said before~ 이때 전에 말한 내용이란 "Calypso"장에서 동물내장 음식을 블룸이 맛있게 먹었다는 대목(4.01)을 지칭. (전은경)

11.522. he ate Bloom ate they ate. U어딘가에 I am. You are. He is.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고한 Hugh Kenner 교수에 의하면(기억이 맞기를!) 작가가 Berlitz School

에서 영어선생 할 때 써먹던 문법 연습용 어투에 슬쩍 기댄 private joke라고 코멘트 했던 기억이 있는데(다시 기억이 맞기를!!), 여기서도 he하고, 그 다음 Bloom하고, 합쳐서는 they하는 문법 drill을 하고 있음. (김길중*)

11.527~29. Haw haw horn....bassoonded~ conquering hero인 Bolyan이 성에 다가갈수록, 그의 quest의 성취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보일런을 환영하는 fanfare가 울려 퍼짐. 이에 맞추어 점점 더 많은 종류의 wind instruments가 동원됨. 여기서 그의 quest의 목표는 성스러운 과업이 아니라 sexuality임. (송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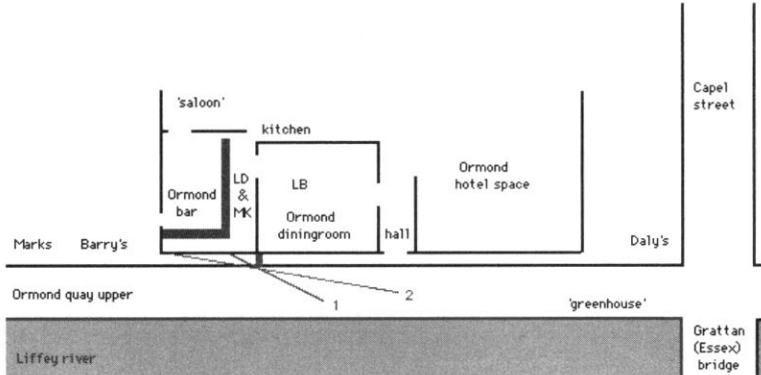
〈토막 촌평〉 "As said before": 귀신의 차원?

제11장 "사이렌즈"가 3분의 1 조금 넘어선 지점에서 Bloom과 Richie Goulding은 Pat에게 식사 주문을 하는데 각각 "Liver and bacon"과 "Steak and kidney"이다 (11.490). 음식이 나오고 이 두 어정쩡한 합석 손님이 첫 술을 뜨는 묘사가 이렇하다. Pat served, uncovered dishes. Leopold cut liverslices. As said before he ate with relish the inner organs, nutty gizzards, fried cods' roes while Richie Goulding(11.519-21) 비록 기억력이 시원찮은 초행의 독자라도 여기에 이르러서는 블룸이 처음 등장하는 "칼립소"의 미수결이 문장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 주인공의 현묘한 식벽(食癖)이 꼬장꼬장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Mr Leopold Bloom ate with relish the inner organs of beasts and fowls. He liked thick giblet soup, nutty gizzards, a stuffed roast heart, liverslices fried with cruster crumbs, fried hencods' roes (4.1-3). *Ulysses* 스타일에는 전반(initial)과 후반이 있는데, 후반 스타일의 큰 특징은 이야기의 "서술자" 혹은 "관리자"의 활약이 유난스럽다는 점이다. 11장의 "서술자"는 Ormond에 주저앉은 블룸이 나이프를 들고 liverslice를 자르자, 이것은 참을 수 없노라는 듯이, "저 블룸 좀 보아! 저것이 내장 먹는 입맛의 진면목이야!" 하고 소리라도 치려는 듯이, 이 사람의 기이한 입맛보다 더 중한 관심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는 듯이, 이 때야말로 산만한 독자의 이목을 붙들 절호의 기회라는 듯이, 이야기 무대의 전경(前景)으로 불쑥 나서는데, 그 구실이 보다시피 "As said before"이다. 이야기의 무대에서는 "(서술)진행자" 혹은 "(무대)관리인"이 얼굴을 내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두 차원을 엿보는 것이 원칙상 금기이

어야 하는 까닭은 만일 창조의 공간에 창조주가 현신한다면 창조의 진정성이 내부에서 부정되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As said before"는 일견 이 모순을 무릅쓴, 그래서 그만큼 느닷없는, "서술자"의 육성(肉聲)에 해당한다. 까다롭게 따지자면, 무대 밖 다른 차원에서 오는 이 육성 개입(intrusion)이 "진정한 서술자"인지, 무대 전체를 특권적 위치에서 예의주시하는 "특권적 모니터"인지는 불분명하다. 개입자의 언사(言辭)가 As I said before가 아니라 주어를 숨긴 As said before이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지 그 "느닷없음"의 효과는 같다. "아이올로스" 장에서 MacHugh가 한 말 "The ghost walks"(7.237)에 기대어 이 개입의 원천을 "귀신의 차원"이라 하고 싶다. 'As said before'는 우리말이라면 '앞서 말한 바대로.' 연강(演講)의 만만한 액세서리요 진부한 상투어다. 누구에게나 낯익은 말이다. 이런 경우 아니라면 언제 쓰이겠나 싶게 아귀 꼭꼭 맞추어 당당하고 천연덕스럽다. 우리의 기이한 주인공이 아침에는 집에서 "콩팥"을 구워먹고 오후 4시에는 Ormond Hotel에서 "간"을 먹지만 이런 선택(parole)은 "앞서 말한 바대로" 그의 입맛에 관한 상위 원리(language)의 소산일 뿐이라고 범상하게 훈시하는 듯도 하고. 그런데 이 미끈하게 들려오는 말을 그러려니 하다가 다시 돌아보니, 헉! 기막힌 말이다. 마치, 늘 다니던 마을 서낭당 곁을 지나다가 소복한 사람을 보고 좀 이상했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생각도 없이 까닥 고개 짓 인사까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제서야 어딘가 켕겨서 잘 생각하니 귀신이더라, 그런 느낌에 상응한다고나 할까. 잠깐 비친 기술 공학적 4차원 서술의 순간이다. 기막힌 상식적 서술의 패러디이다. 우습고 터무니없지만 한편으로는 언중유폭. 글쓰기 자체가 쟁점화되고도 있다. 작가 스스로 자세는 낮추었지만 득의만만한 일갈이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As said before"는 약간의 변종을 합쳐서 "사이렌즈" 장에 세 군데(11.569, 11.761, 11.763) 더 나타나기 때문이다. (김길중)

〈참고자료〉

Ormond의 내부구조 및 주변 약도



preliminary diagram (for explain of the numbered lines see 11.74)

출처: www.robotwisdom.com

〈학부생 소감〉

4월 15일 독회에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영문학개관 III> 수강생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그 중 몇 학생이 해당 강좌의 website에 추후 소감을 올렸기에 여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1. 학생 A

저는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Joyce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독서’라는 작업에 있어서 독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작가와 그런 작가의 가르침을 학습(흡수)하는 독자라는 고정된 위치를 전제하지 않고, 독자를 텍스트 속에 떨어뜨려 주고 스스로 idea-making을 하도록 끊임없이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Joyce는 텍스트에서 ‘발산’되는 의미들 뿐 아니라 새롭게 ‘생성’되는 의미들까지도 허용(?)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독자는 스스로가 쌓아온 백과사전적 지식까지도 총동원해서 텍스트를 재구성해가게 됩니다. ‘인식’이란 것이 ‘저기 바깥에’ 있는 저 세계에 대한 표상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 속에서 임의의 한 세계를 되풀이하여 내놓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나의 *Ulysses*”, “너의 *Ulysses*”, 등 여러 가지 version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작업이 퍼즐 맞추기 같은 언어마술에 그치는 것이라던가 작가가 보여주고자 한 ‘주제의식’의 존재까지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아요. 다만, 미리 상정된 작가의 주제의식이 전수되면서 독자가 텍스트 속에서 그것에 대한 선택적인 관찰을 하는 대신에, 특수하고 일상적인—너무나도 trivial해서 어떠한 주제의식이 관통하고 있는 건지 생각하는 독자의 습관조차 해체하고 텍스트 자체만을 순수하게 대면하게 하는—상황에서 등장인물들의 개별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사례들에 하나하나 주목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큰 줄기를 찾아갈 수 있으리라는 태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Ulysses*의 detail들이 단순히 무질서할 뿐이라거나 난해함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 (글쓰는 작가와 읽는 독자 모두에게) “새로운” 인식을 발휘하도록 자극하는 과정에서 동원해야 했던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로렌스와 조이스라는 두 “대비”되는 작가들에게 동시에 attachment를 느끼고 있는 희한한 사람입니다. 서사적으로 둘 다 일종의 ‘간극’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와서 그런 것 같아요. 조이스의 경우 인물들 사이의 대화체, 내면의 독백체(의식의 흐름), 무관심한 척 불쑥불쑥 등장하는 내레이터의 코멘터리 등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여러 가지 기법이 교묘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Sirens” 장에서는 노래가사와 언어의 변형을 통한 시각적·청각적 효과까지 더해져서 그런 면모를 더욱 극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로렌스의 경우에는 서사적 기법보다는 characterization에서 간극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빅토리안 소설에서 인물들은 권선징악의 교훈을 실현하기 위해 선악 구도에 놓이거나, 특정 사회계급의 본보기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인간 합리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물들을 구성하고 나열하는 대신, 로렌스는 인간이 스스로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하는 인간 삶의 면모까지도 생각하였기 때문에 한 인물들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기존에 이루고 있던 일관성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 아닐까 합니다.

덧글

- (1) 소설 속의 방대한 백과사전적 지식들(예를 들자면 음악적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을 조이스가 다 알고 쓴 걸까요? 정말 천재인가요?
- (2)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 글에서 텍스트의 의미가 ('발산'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로부터 '생성'되는 것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음, 텍스트의 재구성 문제라던가,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인식'의 정의 역시 모두 그런 의미에서 쓴 거랍니다.
- (3) 알고 쓴 것은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신 그런 지식들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보다는 무질서하게 작품에 산재시킴으로써 읽는 이들이 다양한 해석을 부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조이스 작품의 현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독자 스스로가 의미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이겠죠.
- (4) 동의합니다. 사실 당대의 모더니스트들은 문화적 교양의 측면에서 엘리트들일 거라고 심정적으로 굳히고 있습니다. Joyce나 Eliot이나, 이렇게 text를 갖고 놀기 좋게 만들어놓은 걸 보면 Paterism의 극단일지도 모른다고 순간 생각이 듭니다

2. 학생 B

오늘 Joyce 학회 너무도 신선한 충격(?)인데다가 저에게 정말 필요했던 도전의식을 심어준 귀한 계기였습니다. 우선 생각보다 분위기가 너무 오붓해서 좋았구요, 정말 단어 한 개도 놓치지 않으시는 선생님들의 능력과 열의에 감탄과 자괴감을 동시에 느꼈답니다. 우선 앞으로도 영문학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만 조이스의 *Ulysses*는 오늘 처음 제대로 접해보았습니다. 제가 조이스에 대해 아는 것은 *Dubliners*의 단편 몇 편과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을 부분적으로 읽은 것이 다인데, 새삼스럽게 제가 여태껏 익숙했었던 조이스의 문제와는 *Ulysses*가 너무나도 달라 보였습니다. 특히 월요일 날 계속해서 발표를 할텐데, "Araby"를 보면 문장과 묘사, 대사도 매우 짧고 간단하며 전혀 난해하거나 알아듣기 힘든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룬 짧은 분량에서만 보아도 *Ulysses*의 문체는 훨씬 **wordplay**가 많고, 한 대사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주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장치들이 많이 등장하더군요. 장편과 단편에서 너무도 다르게 와 닿았던 조이스의 보이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신선한 충격(?)을 제게 안겨다 주었습니

다.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요. 또 chalice라는 단어를 보고 무지 반가웠습니다. 역시 조이스의 작품들에는 종교적인 측면과 그에 대한 언급을 빼놓을 수가 없나 봐요. Ulysses도 호머의 대서사시와 parallel을 이루고, "Araby"도 중세 기사도 문학과 parallel을 이루니 공통적으로 이런 언급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네요.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참 Ulysses를 조금이라도 읽었다라면, 또는 기본적인 지식이라도 조금은 있어서 선생님들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아쉽고 부끄럽더군요. 정말 많이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덧글

- (1) 저도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 열정적이시고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Ulysses라는 작품의 깊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니다.

3. 학생 C

아, 정말, 오늘 조이스 학회 잘 다녀왔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물론 주축이 되어서 토론을 하셨지만 보고 있는데 순간 문득 설렘이랄까요, 두근거림이랄까요, 정말로 확 들떠서 진정 못하고 내내 혼자서 배설배설 웃고 있었답니다.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여기에서도 떠들어놓지 않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또 별거 없는 글을 끄적입니다. 사실은 아까 중간에 끼어들어서 코멘트를 하고 싶었는데 꼭, 참았거든요.

사실 오늘 텍스트가 없이 줄거리만 대략 읽고 가서 좀 애를 먹기는 했습니다만 (월요일에 텍스트 독해를 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지요) 놀라움과 유쾌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이스의 세계란 사실 전 울프의 글을 읽으면서 '의식의 흐름' 수법에 대해 정말 짙은 회의를 가지게 되었는데, 진짜 waiter는 누구냐? 하는 논의를 들으면서 아하, 하는 느낌에 확 찔렸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목소리, (소위 귀신'으로 불리던) 그 애매함의 중심에는 어쩌면, 인간 보편이라는 지향점이 있는 게 아닐까요. 기존의 소설 속 캐릭터들이 a는 a의 목소리, b는 b의 목소리, 딱딱 고정된 역할에 따라 움직였다면 특히 조이스가 보여주는 의식의 흐름 기법은 주체를 모호하게 흐려놓음으로써 " '누구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일 수

있다, '누구든' 주인공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며 보이지 않는 기저의 집단무의식이 나 원형적 idea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동시에 무수하게 사방에서 퍼져 나오는 목소리의 조화처럼 말이죠. 뚜렷한 카리스마의 소유자인 이전의 hero를 극대화된 개인으로 본다면 이를 해체한다는 점에서 모더니즘적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이스의 작품도 한쪽에서 정신분석학 쪽과 연계해서 연구가 되고 있지 않았던가요?) 평범한 시민, **unconquered hero**일뿐인 블룸을 표면적으로나마 주인공으로 내세운 걸 보면 조금 더 확신이 가는 바입니다.

또 오늘 이야기하면서 "서술자는 심정적으로 블룸의 편이다"라는 쪽으로 논의가 기울었더랬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사는구나!"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지금 이 순간에 지구상에 n명은 여러분처럼 컴퓨터 앞에 있을 터이고, n명의 사람들은 벚꽃놀이를 즐기고 있으며 n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그네를 타고 허공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이러한 지극히 보편적인 행동과 생각들--- 1인의 영웅과 뒤에 묻혀지는 수백 수천의 엑스트라들을 보며 조이스는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빛의 세계로 끌어낸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뚜렷하고 결말이 확실한" 즐거리를 기대하며 읽던 독자는 일상성의 혼합에 잠시 멈칫, 당황하는 것일 테고요---일종의 낯설게 하기랄까요? 즉, 그의 글은 그저 퍼즐 맞추기 같은 언어 미술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분명 그만의 "주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등장하는 성배 모티프와 빛/어둠 이미지, 로맨스에 대한 패러디(?) 등은 "Araby"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오늘 안 오셨던 분들도 두 작품을 같이 떠올리며 읽어보시면 색다른 재미를 찾게 되실 것 같아요. 딱히 논리 없이 감상으로 치달는 글만 올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중간고사의 압박 앞에서 어떻게라도 작품에 정을 들여야 시작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월요일에 이어지는 발표를 기대하며.

덧글

- (1) 의식의 흐름 기법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작품 내의 많은 대화들은 Bloom의 의식을 거쳐 독자에게 제공되는 것(Narrator는 좀 별개지만...때때로는 이마저도!)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모든 이에게 주인공이 될 기회를 제공한다라, 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견해로군요.